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을 찬양 하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서로 멸시하며 미워하며 하나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5월 28일 (토) 제 187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하소서!”

‘성령강림절기’, 올바른 성령 이해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 하자!

‘교회력’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력을 따라 설교한다면, 교회의 설교는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게 한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수난, 죽음, 부활, 영으로 임함,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역사를 매해 되새김으로, 우리에게 구원사의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체험케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항구적인 은총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피우스 파쉬(Pius Parsch)는 교회력을 가리켜 '은총의 교회력'이라고 불렀다.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이자 오순절인 날, 교회는 성령강림 주일을 지낸다. 이 날은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의 증거자로 힘차게 복음을 선포했던 성령강림 사건을 기념하며 또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묶는 사랑의 끈이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사랑의 끈이다. 하지만 성령은 이해하기 어렵고 왜곡되거나 체험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코로나19 광풍이 어느 정도 사그라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주춤 할 때, 올바른 성령 이해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금이나마 엿보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신성한 탁월함의 영광스러운 병치라고 한 말을 가능하게 된다.

남침례 신학교 신약학 조교수 J 펜팅톤(Jonathan Pennington)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교육자 그리스도(Christ the Educator)이다. 오늘날 이렇게 부르거나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지만 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들린다. 이보다는 교사 그리스도(Christ the Teacher)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교사 그리스도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칭호이다. 성경에서 주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

신다. 그는 가르침의 선지자, 가르침의 왕, 그리고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에 필적하는 지혜로운 교사로 묘사된다. 따라서 교사 그리스도는 정말 적합한 호칭이다. (3면으로 계속)



KPCA 제46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KPCA 제46회 총회

총회장 박상근 목사, 부총회장 서명성 목사, 이화영 장로 선출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6회 총회가 5월 10일과 1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 (담임 박상근 목사)에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행 20:28, 골1:24)'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목사총대 135명과 장로총대 93명 총 228명이 참석하여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회의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신임원을 선출하고 여러 안건들을 다루고 결의하였다. 이번 총회 주요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3년간 교단 인준 신학 교였던 미주장신, 뉴욕장신, 서북미장신을 교단 직영 신학교로 전환을 허락하다. 2.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신학교 졸업 후에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재하 중 1년과 졸업 후 1년으로 바꾸고, 선교사와 군복은 교역 경험 연한에 예외로 할 것을 허락하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들어가다. 3. 5세부터 11세 아동에 대한 아동세례를 허락하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들어가다. 4. 조직 교회 수 부족으로 인해 폐회되었던 유럽총회를 회복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허락하다. 5. 동남노회와 필라노회를 통합을 허락하다. 6. 40명의 목사고시 합격자를 보고하고, 36명의 목사고시 응시자를 허락하다. 7. 연합주일학교를 비대면으로 network 하여 교재개발을 할 것을 허락하다. 8. 권영욱 목사(캄보디아)와 이성희 목사(공공)를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다. 다음은 새임원 명단이다. (10면으로 계속)

교육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내시는 진정한 교육자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는 매우 많다. 그의 다면성도 그러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은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다. 미니멀리스트 예술가가 하얀 캔버스 위에 찍은 점 하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는 다차원의 존재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쁨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친구, 왕, 대제사장, 창조자, 전능자(Pantocrator),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부활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 새 아담/두 번째 아담/마지막 아담, 유대인의 왕, 질고를 아는 자, 세상의 빛, 온 세상의 빛,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선지자, 사도, 생명의 양식, 랍비, 보혜사, 사자, 어린양, 이렇듯 다양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 우리는 그 영광을 조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가르기의기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2022년 제7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훈련일정
• 1차 (수료대상): 8월 8일(월)-8월 19일(금) 오후 7시 -10시 (미국 동부시간)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 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협력중심, 땅끝중심), 선교사의 경건훈련, 난민선교, 사업장선교, 미디어예방선교, 시티교회, 지역교회 선교전략, 웨일즈선교, 지역교회 차세대선교, 의료전문선교, 미디어전략선교, 스페니쉬사역
• 2차 (파송대상): 8월 22일(월)-8월 26일(금) 오후 7시 -10시 (미국 동부시간)
1차 훈련 및 선교사의 정체성, 선교지 소통, 선교사의 영성, 전도훈련, 전문인선교사, 인도네시아선교, 도심선교, 간증/나눔
훈련방법 온라인 훈련 (Zoom, YouTube)
훈련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금융,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50 / 부부 \$80
등록마감 7월 31일(주일) 등록문의: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강사진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김기석 목사 PGM 이사장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김은범 목사 PGM 부이사장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고훈 목사 PGM 정책이사 사카고 현미장로교회	안사무엘 목사 PGM 실용부서	김영민 선교사 PGM 한국본부장 (한국 다문화선교)
조영태 선교사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양종언 목사 안디옥 스페니쉬교회	고대은 목사 안디옥 필방교회	이준섭 목사 안디옥 시티교회	이민우 목사 이스탄 안디옥교회	이민재 선교사 PGM 해외훈련부장 (한국 다문화선교)
김현영 선교사 PGM 순회강사선교사 (동유럽/수원전문)	폴현 선교사 PGM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민민/금융전문)	양용태 선교사 PGM 선교사 (그리스, 남민전문)	함춘환 선교사 PGM 선교사 (인도네시아, 금융 및 교회개혁)	김데이빗 선교사 PGM 선교사 (U.K, 루터사역전문)
박상수 선교사 PGM 부이사장 (교육/강사전문)	정준영 선교사 PGM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전문)	John Park 선교사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	박예스 선교사 PGM 선교사 (RN PhD, 교수전문)	김엘리아 선교사 PGM 선교사 (미디어예방선교사전문)	송기정 선교사 PGM 선교사 필라 안디옥교회 차세대교육부장
김지은 전도사 필라 안디옥교회 초등부 주일학교 디렉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선교헌신자들을 발굴하여 PGM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사집중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발행인 칼럼

그리스도인으로 죽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대학 시절 어느 여름날 슬픔의 소식을 듣고 같은 과 친구들이 모였다. 한 친구가 교회 수양회에 갔다가 의사하였다는 것이다. 목회 사명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당혹감과 아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친구의 아버님 때문이었다. 목사님이셨다. 목사님은 교회 수요 예배 때 그 소식을 듣게 되셨다.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사 하셨다고 한다. 만일 교회 다른 청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목사님이 매우 힘드셨을 것 이라고 하셨다. 아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며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셨지만,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잘 가르쳐 주셨다. 그때 죽음의 가슴자 무었인지 분명히 알았다. 구원받고 죽느냐 구원 없이 죽느냐, 예수님 안에서 죽느냐 예수님 밖에서 죽느냐 죽음의 절대 분수령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면 어떤 죽음도 비극일 수 없다.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5명의 무슬림에 의해 독일인 틸만 선교사님, 현지인 네자티 목사님과 우우르 형제가 무참히 살해 당하였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위협을 받았으나 타협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모두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네자티 목사님은 평소 이렇게 말씀 하시곤 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목사님은 그의 소원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그들의 장례식에는 위험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모였다. 네자티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런 말을 들려주셨다. "남편의 죽음은 뜻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의 삶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영광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발과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지난 5월 22일 주일 이른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중국 회중을 담당하는 쉐위치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중국인 성도가 토요일 밤에 집으로 들어온 강도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였다. 신실한 형제였다. 아프리카 단기선교도 다녀왔다. 노방 전도도 열심이었다. 교회 주차장에서 늘 봉사했다. 결혼한지도 몇 개월이 안 되는 새신랑이다. 그 소식을 접한 주일 내내 나는 물론 온 교회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도 한 가닥, 아니 큰 줄기의 소망이 있었으니 그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서술(敘述)은 "그는 성공했다" 이거나 "그는 잘 먹고 잘살다가 많은 재산도 남겼다" 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결론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는 교회 잘 다니다가 죽었다" 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를 동의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쪽정이 같은 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자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아무튼 내 인생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도 그러해야 한다.

미 슈퍼마켓 총기난사...10대 백인 우월주의자가 빛은 참극 BBC, 극단적 인종우월주의가 빚어낸 비극, 총기 규제/인종 갈등 논쟁 재점화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십 대 백인 남성이, 일부러 흑인 밀집 지역을 노린 것이라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페이튼 겐드론(18)은 거의 200 마일을 운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 폭력적 극단주의로 인한 인종 혐오를 공격의 동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바이런 브라

운 버팔로 시장은 용의자가 "가능한 한 많은 흑인의 생명을 앗아갈 목적"으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던 인물인 겐드론이 어떻게 이 같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uffalo shooting: Gunman sought to 'continue his rampage').

사상자 13명 중 흑인은 11명, 바이든 대통령 "미국 영혼에 오점으로 남아 있는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겐드론은 이미 지난 6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난사하겠다고 협박한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겐드론은 정신 감정 진단을 받았다.

한편 겐드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80페이지 분량의 문서도 발견됐는데, 자신을 파시스트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로 묘사했다.

캐시 호킬 뉴욕 주지사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의자 겐드론에 대해 무엇을 알았었고 언제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겐드론은 총격 전날 이 지역을 "정찰"했다고 한다.

한편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온라인상에 남겨진 극단주의적 자료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매일 혐오와 증오 섞인 감정을 먹으며 살아가던 병든 정신 이상자의 짓"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5일 희생자들을 위해 열린 추모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슴이 아플 따름이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상자 13명 중 흑인은 11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러 컵케이크를 사려던 남편과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만난 후 장을 보러 들린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BC의 마이크 웰링 기자는 이번 사건 역시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이라고 분석한다.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 난사 사건, 2019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 20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이젠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까지.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진 범인이 온라인을 통해 더욱 극단화된 자신의 이념을 결국 극단적 폭력으로 실행에 옮긴 사건들이다.

이번 버팔로 사건 총격범의 패턴도 똑같았다. 자신의 폭력적인 광기를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며 소위 '선언문'을 올렸다. 범인은 선언문에서 극단주의적 믿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교묘하게 선별된 통계 자료, 음모론, 인터넷 밈 등을 한껏 곁들였다.

또한 인종 차별주의적이며 반유대주의적인 형편없는 서술과 함께 자신이 파시스트이며 백인 우월주의자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용의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극단주의적 성향의 웹사이트와 게시판을 접하며 몰들게 됐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용의자가 게시한 문서에는 언론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가 명백히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 난사 사건 이후처럼 한동안 대형 SNS 플랫폼 기업들은 공격 장면을 담은 영상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짧게 끝나버리겠지만, 미국 내에선 총기 규제 논쟁이 재점화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건드리지 못한 것 같다.



젊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무고한 시민들을 실제로 공격할 만큼 증오를 키웠다.

군복 차림의 범인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경 버팔로의 '탑스 프렌들리'라는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선 뒤,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통하여 광란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슈퍼마켓 경비원이 겐드론을 향해 여러 발 총격을 가해 한 발을 맞았으나, 겐드론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경비원을 죽인 범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며 슈퍼마켓 안을 돌아다녔다.

직후 겐드론은 체포됐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목격자들의 증언한 사건 당시의 모습은 끔찍했다. 어떤 목격자는 "마치 악몽 같았다. TV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지만, 제가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나, 인종 혐오 범죄를 강하게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영혼에 오점으로 남아 있는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백악관은 이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근일 내로 버팔로를 방문해 지역사회를 직접 위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 내 총격 살인 사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자살을 포함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며,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기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은 15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이벤트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이벤트2.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3. 화상입학설명회.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 문의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오소서 성령님 ...

(1면에서 계속)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입자 하나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뜻하지 않은 불청객으로 찾아온 코로나19는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함'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거리두기'였다. 함께함이 문제였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뒀다. 마스크 쓰기는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사회적 규칙으로까지 정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없게 됐다. 마스크로 가린 얼굴로 우리는 서로 간에 간격까지 뒀다.

바이러스가 바꿔 놓은 곳은 비단 세상만이 아니었다. 주님께로 '불러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모임'은 바이러스 확산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유래 없이 공동체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엄청난 상황에서 교인들은 저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했다.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도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발하게 공동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 버린 교우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다.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묶으시고, 나아가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시는 일치와 사랑의 끈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될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를 당신과의 끈끈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 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三位) 사이에 이룬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 보여 주셨다. 사랑의 원천으로서 성부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사랑을 나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사랑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결합하게 하는 사랑의 끈, 성부와 성자가 일치를 이루는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계시다. 성부와 성자의 상호 사랑이고 공통의 사랑인 성령은 세 위격을 한

데 묶는 끈이며, 성령으로 결합된 사랑의 관계는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랑의 관계다.

삼위의 사랑은 삼위 안에만 가둬져 있지 않다.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자, 그전까지는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다. 성령의 호칭인 '결로 불려 온 분'(ad-vocatus)이라는 뜻을 지닌 '파라클레토'는 보호자, 변호자라는 뜻이다.

성령을 표현하는 '영'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루아'(Ruah)의 번역으로, 본래 숨결, 공기, 바람 등을 의미한다. 성령, 곧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영인 새롭고도 초월적인 존재인 그분은, 우리로서는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위격이다. 창조로부터 성령 강림 이전까지 성령은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기에 성령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령을 물, 불, 손가락, 비둘기 등의 상징으로 표현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교회 역사 안에서는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다.

완전한 사랑의 끈으로 결합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듯,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한 우리의 신앙이

이루는 사랑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다. 또한 당신의 몸은 모시고 '파견'된 그 자리에서도 이웃 사랑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 놓은 지금,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를 이룬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며, 그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의 거리도,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도 좁혀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서 기쁘고 담대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행 2, 14-36)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세례를 받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모임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일을 교회의 창립일로 기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빛 안에서 구원의 도구이자 표지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활기찬 생명력을 간직하고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선포해야 한다.



한미수교 140주년 역사를 돌아보며



류영울 목사 (약성문중앙장로교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방문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동맹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신호탄을 새롭게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1882년 5월 22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은 한국 역사에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의미 있는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온 복음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의 도움과 헌신에 힘입어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의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해방 후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건립에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애잔하게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로부터 한국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1902년 아펜젤러 선교사는 물에 빠진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 익사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따라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885년에 결혼 하자 신부를 데리고 6월에 한국으로 들어온 해론 선교사,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33살의 청년 시기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1890년 1월에 들어온 마포삼일 선교사는 수백 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웠으며 그가 세운 평양신학교는 오늘날 충신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1892년 전라도에서 교육사역과 영혼구원에 삶을 던진 월리엄 전진 선교사는 세 아이를 조선 땅에 묻으면서 마지막까지 선교에 힘쓰다가 한국에 온 지 15년 만에 43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는 비문을 간직한 루비 캔들릭은 24세 처녀의 몸으로 미국 땅에 들어왔고 의료 시설이 열악했던 한국 땅에서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죽으면 텍사스 젊은이들에게 수십 명씩 아침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그는 한국 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벽안의 여인입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위치한 버지니아주에는 한 시대 한국에서 삶을 보낸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은퇴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노 선교사님들은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한국 땅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벽안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맥도믹 신학교에서는 40명의 학생들 가운데 이렇듯 생소한 조선을 소개받고 선교사로 지원한 학생이 26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아픔 속에 있었던 당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한다는 거룩한 열망 하나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많은 선교사님이 의료 시설이 열악했던 시대에 그들의 자녀를 한국 땅에서 잃고 많은 선교사도 일찍 주님의 품 안에 안겼지만 부모의 대를 이어 한국 땅에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역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 등 많은 면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류는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았던 지난 역사를 딛고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향해 마음을 쏟아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140주년을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평화 정착과 세계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뿌리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오늘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교육자이신 그리스도...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교사가 아닌 교육자로 불러야 함을 지금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 행정가나 교수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성경과 신학, 교회 역사 모두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를 드러내신 참 교사이심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는 그 이상이다. 주님은 영혼의 교육자이시다.

교육자 그리스도는 그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분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변화시킨다. 우리를 흑암과 무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내신다. '교육하다'(educate)의 본래 의미가 '이끌어 내다'(ex-ducere)이다.

교사 그리스도와 교육자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

는 핵심은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고대의 용어로 말하면, 파이데이아(paideia)가 그것이다.

그리스어 '파이데이아'는 아이들과 관련된 단어인데, 그리스 문학에서 유년기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성숙한 어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킬 때 널리 쓰였다. 고대의 사상이 담긴 이 말은 20세기까지 대부분의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교육 철학을 주도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영적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훈련과 성숙이다.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들이 항상 "탁월함" 또는 "덕"을 추구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이해하고 알아보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 그리스 문학 전반에 걸쳐 전인 교육의 최종 목표(telos)는 성숙한 사람(teleios)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만족으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이 목



표(telos)와 성숙한 상태(teleios)는 모두 성경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그리스 단어이며, 이는 종종 "온전한" 또는 "온전함"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파이데이아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과 관계된 것이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직업 훈련과 같이 무엇을 하기 위해 사람을 훈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파이데이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직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은 물론이거니와 습관이나 정서, 전례를 통해 미성숙

에서 성숙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기독교 제자도를 파이데이아와 동일시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교육자 또는 교사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한 예로 영향력 있는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AD 150-215)가 남긴 세 가지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교육자 그리스도'(Christ the Educator)는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과 (5면으로 계속)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펜젤러(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두란노 | 안심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 내 마음도 설교가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 꽤 괜찮은 헤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

한 고독한 인생(one solitary life)

뉴욕의 파인론 세메터리(Pinelawn cemetery)에 가면 사무실 건물 앞에 아주 크게 걸려 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one solitary life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

해 놓은 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골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한적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목공소

에서 일했고 3년 동안 순회 설교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큰 도시에 발을 디뎠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200마일 이상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는 책을 쓰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무실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대중들의 지탄을 받았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롱받으며 재판관을 통과했고 두 강도 사이에 끼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동안 집행관에 의하여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옷을 탈취당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세기가 지난 지금에는 그는 모든 인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군한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세상에서 바다를 항해한 모든 해군을 다 합쳐도,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국회를 다 합쳐도 그리고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이 고독한 인생만큼 강력하게 지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은 1926년도에 James Allan Francis라는 목사님이 설교 시 전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어떤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위대했던 것은 우리

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해외 유학은 못 하고 세상의 유명한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천하다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렇게 부자가 아닌 처지에 있다고 해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너무도 힘 있고 고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비록 형편이 안 되어 유명한 대학의 학위가 없고 하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수많은 열

매가 하나님 앞에서 맺힐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교회를 30년 목회해 온 목사로서 가끔은 이렇게 일생을 마치기에는 너무 인생이 바쁘지만 하지 별로 영향력이 없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에 나가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일이라고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찾아 올 때 꼭 읽어야 할 글이라 생각하여 one solitary life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새벽별주님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상실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반대되는 악한 마음, 죄를 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짓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실한 마음을 이겨내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잘 알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짓는 죄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죄악의 목록을 분류하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기는 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은 사람이 남을 언론(말)으로 해하는 범 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의 범 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 배악, 부정, 무자비는 인간이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의리를 반역하는 범 죄입니다. 이 다섯 부류의 죄들이 어떤 죄들이며, 어떻게 이겨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인 단체생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 17:1에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에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기” 사기는 거짓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짓은 모든 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수군수군하는 자)은 몇 만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악한 죄입니다. “비방하는 자” 이것은 공격으로 남을 악평하는 자입니다. 레 19:16에서 말하기를,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였고, 남을 말로 매장함은 잔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 실제적 내용은 없이 높은 사람인 체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도 있고, 혹은 실제적 내용이 있고서 그리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잠 16:18에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 죄목들은 애정과 의리를 배반하는 종류에 속합니다. 애정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반하는 자야말로 극도로 악한 자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불효자는 재판을 받게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신 21:18-21).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불효가 여전히 큰 죄악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딤후 5:8). “우매한 자”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공훈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으며, 기억지도 않음을 말합니다(사 1:2-3).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배은망덕의 태도를 볼 때에 느끼는 비통함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배악하는 자” 성경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 지라도 변치 아니”해야 한다고 합니다(시 15:4). “무정한 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기 무정하다 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여 무정함을 가리킨다고 하나, 그렇게 제한을 두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이란 것은 인간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무정한 자는 인정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자비” 자비는 어려움 이 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지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자비는 자비에 반대되는 단어로 악한 인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형제(가족)가 지켜야 할 각각의 의리(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과 공훈을 받은 자는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 지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랑과 약속한 것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여야 하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죄는 자기 자신에 관한 죄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죄는 말(언어, 언론)로 남을 해하는 죄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죄는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죄는 의리를 반역 하는 죄입니다. 이 다섯 부류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간구로 간절히 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다섯 부류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ungkitae1962@gmail.com

알고도 행하는 상실한 마음 롬 1:28~32

와 같은 죄입니다(골 3:5). “악의” 선한 권면이나 교훈에 대하여도 까닭 없이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죄입니다. 이런 죄들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저희 스스로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이겨내며 자기 자신을 지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롬 1:29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시기”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해할 수만 있으면 해하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잠 14:30에 말하기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살인” 마음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 단체생활의 큰 결립

악의 인도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에도 “거짓”을 사용하였습니다(창 3:1-7). “악독” 그 뜻은 “간악”을 가리킵니다. 쿠일(Kuhl)은 해석하기를, 이는 간책과 꾀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모로는 최선을 다하여 남을 도와주는 체 하지만, 이면과 실제에 있어서는 남을 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먼저 위, 아래관계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신앙과 믿음으로 잘 정립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다음 서로의 좌우 인간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잘 세워 나간다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죄는 말(언어, 언론)로 남을 해하는 죄입니다. 롬 1:29 “수군수군하는 자”, 롬 1:30 “비방하는 자”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자들은 공중이 모르게 은밀히 남을 해방하는 자이며, 이는 독사보다 악독한 자입니다. 독사는 접근하는 사람만을 물어서

“자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로 자랑하는 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분도와 같이 천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벧 3:7-9).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적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것은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악행의 길을 개척하여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저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가장 큰 겸손의 완성이십니다. 저희 주님의 십자가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죄는 의리를 반역 하는 죄입니다. 롬 1:30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

“자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로 자랑하는 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분도와 같이 천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벧 3:7-9).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적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것은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악행의 길을 개척하여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저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가장 큰 겸손의 완성이십니다. 저희 주님의 십자가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죄는 의리를 반역 하는 죄입니다. 롬 1:30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

“자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로 자랑하는 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분도와 같이 천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벧 3:7-9).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적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것은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악행의 길을 개척하여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저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가장 큰 겸손의 완성이십니다. 저희 주님의 십자가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죄는 의리를 반역 하는 죄입니다. 롬 1:30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

“자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로 자랑하는 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분도와 같이 천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벧 3:7-9).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적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것은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악행의 길을 개척하여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저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가장 큰 겸손의 완성이십니다. 저희 주님의 십자가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죄는 의리를 반역 하는 죄입니다. 롬 1:30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

모든 것이 필연

인생에 우연은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 모든 순간이 필연임을 알게 된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건이 필연 중에 필연임을 발견하게 된다. 매 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일 수 없다. 성경의 역사일 따름이다. 더 나아가 이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도, 사람의 힘과 의지가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이다. 자신의 인생에 닥치는 매 순간이 그런 소중한 한 시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는 그냥 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예비된 신부의 삶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할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예정과 작정의 필연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이다. 선택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 간다. 시간과 사건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선택하기

택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둘 중에 네가 선택할 것은 생명 열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위해서 선택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것이다. 선택은 곧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평생이 결정되고 영원이 결정된다. 순종의 여부가 곧 선택의 내용이다.

믿음은 선택의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삶과 신앙의 방향으로 선택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영생이 영멸 되었다.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정(선택)했을 때, 그는 복된 인생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좃음을 선택함으로써 그 인생이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

우선 제목이 되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주심으로 생령의 삶이 시작되었다. 생령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졌을 때 시작되었다.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2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 생령의 호흡을 시작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적 측면에서 보면 호흡 있는 자가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멈춘 것이다.

선택과 순종을 위한 호흡

호흡을 멈춘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는가? 물론 조금도 삼킬 수 없다. 호흡을 멈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마 7:19) 7절 이 말씀을 한 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이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주님의 뜻이다.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응답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전제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응답이 100% 약속된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은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왜 구하라 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볼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에 구하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찾는 것, (seeking)이다. 왜 찾으라 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은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복된 삶을 위한 선택

- 선택, 순종, 기도 -

전까지는 선택에 대한 결과가 희미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나 선택하고 나면 선택에 대한 결과가 분명해지고 삶은 다이나믹하게 힘 있게 전개되어 간다.

선택은 순종의 문제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요구하셨다. 생명 실과와 선악의 실과 앞에서 선택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생명과를 선택하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해놓으셨다.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면 선악과의 결과인 ‘정녕 죽으리라’가 실제화 되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인생은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런 의미로 선

을 섬기는 삶도 선택과 순종의 삶이다. 늘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선택과 순종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최고 우선의 선택

오늘날 신앙생활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 기도하면 성경 읽게 되고, 성경 읽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과 예배의 본질이다. 그 어느 하나가 없다면 불균형이 되고 만다. 기도와 말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때,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맞보는 복 있는 선택을 맞보게 되는 것이다.

기도가 왜 선택과 순종의 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 몸을 더욱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 숨 쉬는 자는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호흡이 되고 난 다음에, 선택과 순종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대로 인생의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다. 사무엘은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현장 사역은 끝났어도 기도사역은 계속했던 것이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 하라고 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

그리스로만 교육의 많은 형태가 교육자가 제자/학생(disciples/students)을 모으고 마음과 영혼의 성숙을 목표로 훈련한다. 기독교 정체성의 근간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제자, 학생으로 불리며,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교육자이심을 (종중 간과되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의미한다. 예수님은 물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러나 주님은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의 교육자 이상이지만 그렇다고 그 이하도 아니시다. 사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이 통찰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제안한다. 우리는 이 탁월한 진리에 대해 말할 내용이 넘쳐나며, 또한 마땅

히 좋은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다.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마침내 축복의 순종을 위한 잠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할 때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 마침내, 다이나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davidnjon@yahoo.com

교육자이신 그리스도...

(3면에서 계속)

그 칭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교육자이신 예수님을 이같이 탁월하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발견한 이는 비단 클레멘트만이 아니다.

교육을 파이데이아로 이해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성경 속 파이데이아의 운용은 분명히 기독교적이지만 파이데이아는 여전히 그 단어 본래의 정체성을 가진다. 헬라어 성경의 가르침은 그 교훈이 생성된 당시의 언어와 세계관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육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두드러진 시대에(유대와 헬라 배경 모두에

대당) 살며 호흡한 사람들이다. 사실 나는 파이데이아가 구원의 의미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고까지 말한다.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 뒤를 잇는 사도들을 보면 이들은 진리의 내용을 배울 뿐만 아니라 모방을 통해 성숙해지는 법을 배울 제자들을 모으고 있다고(전 4:16, 11:1, 요삼 1:11).

성경의 용어인 ‘제자’(마테스/mathetes)를 한번 주목해 보라. 우리는 영어에 너무나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고대의 교육은 너무 생소해서 둘의 연관성을 잘 보지 못한다. 제자는 학생이고 학습자이며, 교육자(educator/pedagogue)를 따르는 자이다. 유대의 랍비 전통이나 고대

히 그리해야 한다. 많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영혼을 교육하는 일을 동일시한 이 새로운 통찰에 비추어 새롭게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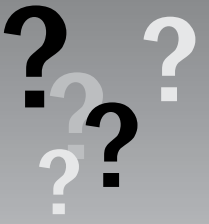
한 예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며 고대 세계 전체에 퍼져 있던 파이데이아와 텔레이오스-성숙(teleios-maturity)의 개념을 헬라어 본문이 어떻게 환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히 2:10).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1.5세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적 사명을 받아 목회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데 저와 함께 사는 아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사역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 LA의 모 목사

A: 한마디로 사역이나? 가정이나? 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반드시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아내가 아직까지 목회의 사명이 없다고 하면 목회의 사명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인이 사역을 하기 싫어한다고 사역을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은 비 성경적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 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후 3:2-6)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한다 아내가 목회를 반대하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바울의 말처럼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가 자기 부인도 제대로 감화시키지 못하고 사역으로 한 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 헌신과 사역의 길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우자의 간음(Adultery) 외에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 성경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 목회자가 이혼을 안 한 착한 성도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려는 자는 우선 자신부터 갖고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심기체를 갖고 닦아야 가정을 정갈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큰 일은 작은 일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목양하기 전에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내가 목회를 반대하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피종진 목사 6월 부흥성회



-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전문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ABKI) 제12기 동문회 고문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M.Min)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수) 제 29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주최 한국기독교지역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한국기독교 사모신문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장소 다산 예정교회 대성전 (설동욱 목사) 010-3942-0002
1(수) 저녁 2(목) 오전 서울한국문인교회 (박재천 목사) 010-7704-7272
동서울노회 원로 은퇴목사회 (회장 피종진 목사) 장소 남서울중앙교회 (02) 3411-9191
3(금) International Mission Blessing
4(토) 오전 서울 명동교회 (최요한 목사) 010-3767-0347
5(주)~7(화) 세종 생수교회 (최병남 목사) 010-5401-2476
8(수) 저녁 대구 주강교회 (조예림 목사) 010-8908-1487
주최 뉴글로벌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윤 목사 010-2296-0675
9(목) 오전 한양산 기도원 (이영근 목사) (031) 585-1004
주최 지선협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3(월) 오후 청소 서울 현명대학교 (총장 현영준 목사) 주최: 제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운영총재 현영준 목사, 대표회장 오병렬 목사 010-5313-9448) 1(화) 오후 오산리 최치실기념 국제급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직전자 성심선교회 (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15(수) 오후 부산 글로벌교회 (강은숙 목사) 축복성회 010-3670-8999
20(월) 저녁 (제) 한국기독교 부흥사단계 총연협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장사무열 목사) 010-7733-9106 장소 서울 현명대학교 (총장 현영준 목사) 대강당 제 22차 해외성회 (224th Overseas Assembly)
22(수) 미국 (USA) 오렌지카운티 순복음교회 (이선자 목사) 1 (714) 220-7660
23(목)~25(토) 미국 (USA) I pray for all Nation 미주 서부지역 세계 기도회 1 (301) 404-6219
26(주) 오후 미국 (USA) LA 평화교회 (김은목 목사) 1 (213) 249-2467
27(주) 저녁 미국 (USA) 남가주 Xanlim World Prayer Center (세계성회 기도센터) 1 (213) 249-2467
27(월) 미국 (USA) Orange Country family MT 1 (949) 636-1558
28(화) 오전 미국 (USA) 세계 기독교어머니 기도회 남가주부흥회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1 (714) 220-7660
29(수) 미국 (USA) LA
30(목) LA 출발 귀국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토요칼럼

김한택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서기(瑞氣)

서기는 상서로운 기운이라는 뜻이다. 이런 서기가 대통령 취임식장 상공에 나타났다. 코로나 19라는 대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뒤엎힌 시점에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런 현장에 나타난 무지개는 일말의 희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핑크빛 공약이나 기대보다 더 자연이 나타내는 이런 현상이 반가울 수도 있는 까닭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로 입과 코를 막고 다니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마스크는 그저 병균이 발생하는 곳이나 먼지 등이 심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선택적 도구일 뿐이었다. 사람이 숨을 쉬는 모든 공간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공포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나 세계는 그런 세월을 3년 가까이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비롯해 졸업식이나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도 여지없이 마스크가 등장했고 그것이 습관이 되

니 이제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참담한 변질이 있기까지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그 무엇으로도 계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중에서도 정신적이 피폐는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암담한 시점의 대통령 취임식장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재앙 끝 희망 시작이라는 강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징조는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사람들의 죄가 머리카락 하나도, 물 한 방울도 더는 들어가지나 채울 수 없는 관영(貫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 홍수를 내리셨다. 자그마치 40 주야에 걸쳐 쏟아진 비로 땅이 잠기도 집이 잠기고 마침내 모든 산들까지 다 물에 잠겨버렸다. 물바다가 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생명체들이 탄 노아의 방주만이 물에 떠있었다. 비가 그쳤으나 세상이 다 물

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

이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6:8-13). 무지개는 재앙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증거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체되는 정권의 현장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생활의 무게들로 찌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기에 온 국민이 좋은 징조, 상서로운 기운이 대한민국에 뻗어갈 것이라 믿는 이 기대를 이뤄주시리라 믿는다. 엘리아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멸한 후 3년 반 동안 이어졌던 지독한 가뭄이 그칠 징조를 바나 위에 떠오르는 손바닥만 한 구름에서 찾았으니 우리가 취임식장 상공에 뜬 무지개를 통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인 오늘 하수상한 바람이 종일 몰아치고 있다. 시원한 바람도 아니고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들을 말리는 참으로 수상한 바람

이다. 어느 가수가 부른 바람아 멈추어 다오를 외치며 뻗은 하늘을 쳐다보아 하는 농민들의 마음까지 하얗게 말리는 바람이 종일 불어댄다. 바람이야 어느 때든 불 수 있는 것이겠지만 더는 반쪽과 부침을 몰고 오는 모든 것을 말리는 메마른 바람은 이제 그만 멈춰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는 날 떠오른 무지개가 서기라면, 퇴임한 대통령이 머물 하늘에 보인 햇무리가 서기라면 이제 대한민국에 화합과 공존의 채운(彩雲)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하필 5·18인 오늘 하수상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메마른 바람이 멈추고 가뭄이 그치고 모든 재앙이 그치는 서기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모든 세계인을 기억하시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최초 한글성경 '예수성교성서' 대박음

농사 책으로 위장해 만주와 조선의 국경을 넘었다. 19세기 당시 소지하면 목숨이 위태롭던 금서(禁書)였기 때문이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몰락과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며 빼앗기고 불태우고 버려진 한국 교회 태동기 한글성경 마태복음 가운데 딱 한 권이 한문 낙서가 담겨있는 위장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파송으로 중국 만주에서 활동한 존 로스(1842~1915) 선교사가 1884년 3월 만주에서 발간해 오늘날까지 전해진 '예수성교성서' 대박음 이야기다.



맛대박음은 종이를 반질 접어 접힌 쪽의 반대편을 끈으로 묶었다. 끈은 지금의 서양에서 온 실이 아닌 한지를 꼬아서 만든 19세기 형태다. 이렇게 제작하면 접힌 종이 안쪽 면의 내용을 볼 수가 없다.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접힌 종이 안쪽에 '압라함의자손다윗의후예 예수키스도의족보라(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인쇄했다. 접힌 쪽 겉면에는 '傷田家刈麥(상전가예맥)'으로 시작하는 오언절구 시가 적혀 있다. 훼손된 발에서 보리를 벨 때를 말하는 농사 방법 등을 언급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관현의 눈을 피해 농사 책으로 위장한 맛대박음은 국경을 넘는 뒤 끈을 풀어 접힌 종이 안쪽의 성경을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다시 제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한문 낙서가 성경 인쇄 본 뒤편에 배어나오며, 일부는 접힌 부분이 찢어져 한문 내용을 부분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덕주 교수는 "한글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된 복음을 전한 의미 이외에 식자공에서 권서인으로 거듭난 김충승의 영혼이 담긴 당시 최고 수준의 납 활자로 인쇄된 성경"이라며 "글씨체가 매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심 원장은 지금은 별세한 박의영 전 부산 경성대 교목실장을 통해 1991년 이 성경을 인수했으며, 박 목사는 학창시절이던 한국전쟁 이후 부산 보수동 고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만주 국경을 넘어 서북지방에서 읽히던 성경이 6·25 전란을 피해 부산으로까지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심 원장은 중앙대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으로 '기독교신보' '미션필드' '신학세계' '신학지남' '활전' 등 기독교 문헌 수천 권을 묶어낸 장본인이다. 한국교회사 연구자 중에서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심 원장은 맛대박음 유물의 기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물관에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보다 다채로운 고증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 '하우스 보이' 를 이끈 칼 파워스의 기념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임직원은 지난 21일 미국 버지니아 주 브리스톨에 위치한 컴벌랜드 스퀘어 파크에

서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칼 파워스 상사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파워스 상사는 김장환 목사의 '인생역전'을 이끈 인물로 김 목사의 가족과 극동방송 운영위원 및 임직원들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제막식에는 브리스톨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바비 그리핀을 비롯해 로이 F. 캐슬, 앤진 S. 힐 등 90세가 넘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제막식의 축사는 버지니아 주의 상원의원인 이스라엘 오픈이 전했다. 김장환 목사는 "우리가 머지않아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없어진다 해도 이 기념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점점 참전용사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기념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기꺼이 싸워준 우리의 참전용사들이 계속 기억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파워스 상사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에 왔다. 1951년 경상북도 경산의 미군 캠프에서 '하우스 보이'로 허드렛일을 하던 소년 김장환을 만났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그는 그해 11월 12일 김 목사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파워스 상사는 부자가 아니었다. 미국 아팔레치아 산맥의 한 탄광촌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난 때문에 한국전쟁 참전을 지원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정작 본인은 사립대학 입학에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며 소년 김장환을 명문 사립인 밥 존스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무려 8년 동안 학비를 대줬다. 미션 스쿨인 밥 존스 고등학교에서 김장환은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뒤 신앙이 없던 파워스 상사도 김장환의 전도로 크리스천이 됐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칼 파워스 상사와 김 목사 자신 이름의 영문 첫 이니셜인 'P'와 'K'를 딴 PK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파워스 상사가 실천해온 헌신과 사랑의 사역을 대물림하고 있다. 파워스 상사는 2013년 9월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여리띠 놀라매는 美 신학교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교 육기관인 고든콘웰신학교는 개교 50주년이었던 2019년 일부 교수들과 직원을 내보냈다. 또 학생 아파트와 20에이커(약 2만4000평)에 달하는 소유지를 팔았다.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2일 고든콘웰신학교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해밀턴에 있는 102에이커(약 12만5000평) 규모의 메인 캠퍼스를 매각하고 보스턴 캠퍼스로 이전키로 했다. 스콧 섀넌 고든콘웰신학교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캠퍼스 매각이 성공한다면) 향후 30년 동안 더 나은 재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캠퍼스 매각이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처임을 내비쳤다. 미국신학교협회 통계에 따르면 고든콘웰신학교의 신입생 등록 인원은 2012년 1230명에서



2021년 633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학교는 최근 4년간 매년 60만 달러(약 7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 달러(약 30억원)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은 고든콘웰뿐만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권 신학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는 재정난 때문에 올해 일부 교수를 해고했다. 풀러신학교는 2018년 3개 분교를 폐쇄하고 일부 부동산을 팔기로 했다. 신학교들의 이 같은 문제는 출산율 감소와 세속화 증가에 따른 요인이 크다. 미국 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는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6년 생) 인구보다 약 400만명 적다. 또 Z세대의 44%는 자신의 종교적 전통 배경에 엄매이지 않는다. 부모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자신도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학교들의 생존 분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든콘웰신학교 이사회 의장인 클라우드 알렉산더 목사는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선교의 영속성과 방식(방법)의 가변성을 상기시켜 준다"면서 "신학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임무는 영구적이지만(신학교 운영 방식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세계부부의 날 시상 '2022 올해의 부부 대상'은 성신대학교원대 설립자 최성규 목사와 김정자 사모 부부, 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과 김영숙 원장 부부가 받았다. 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재직 당시 권재도 목사와 함께 매월 셋째 주를 '부부주일'로 선포했다.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숫자 21을 더해 5월 21일을 '세계부부의 날'로 선정하고, 1995년부터 부부의 날 운동을 전개했다. 최 목사 부부는 결혼 54년간 사랑하며 2남 1녀와 손자 손녀 5명을 목회자와 교수, 효자 효녀로 양육했다. 성경에서 효를 발견, '성경적 효 운동'을 펼쳤다. 성신대학교원대를 설립해 효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매년 강연이나 설교 때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모니 운동을 강조했다. 두 이사장 부부는 부부 특강을 통해 국민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물했다. 베스트셀러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를 출간했다. 국제기대 책기구와 인간개발연구원 등 많은 단체의 이사장을 맡아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원호 심진화 부부는 '올해의 개그맨 부부상'을 받았다. '웃찾사' 출신 심진화는 '개그콘서트' 출신 김원호와 지난 2011년 9월 결혼에 골인했다. 부부 금슬이 매우 좋다. 매년 '부부의 날' 인증샷을 SNS 등에 소개한다. 기부와 선행에 앞장서는 모범 부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올해의 국제 유튜브 부부상'은 유진우 레이커들이 받았다. 이외에 '양팔 없는 마라톤녀' 김황태 씨 부부, 배구 선수 출신으로 소아마비 여성을 아내로 맞아 34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이천근 씨 부부 등 10여 쌍이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 세계부부의날위원회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부인을 '올해의 세계 지도자 부부상' 수상자로 선정·발표했다. 지난해 이상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부가 받았다. 젤렌스키 부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도전을 심어주고 SNS

메시지를 통해 지원을 호소, 전 세계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다.尹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안미 적극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단명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위협에도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부부의 날 시상



'2022 올해의 부부 대상'은 성신대학교원대 설립자 최성규 목사와 김정자 사모 부부, 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과 김영숙 원장 부부가 받았다. 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재직 당시 권재도 목사와 함께 매월 셋째 주를 '부부주일'로 선포했다.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숫자 21을 더해 5월 21일을 '세계부부의 날'로 선정하고, 1995년부터 부부의 날 운동을 전개했다. 최 목사 부부는 결혼 54년간 사랑하며 2남 1녀와 손자 손녀 5명을 목회자와 교수, 효자 효녀로 양육했다. 성경에서 효를 발견, '성경적 효 운동'을 펼쳤다. 성신대학교원대를 설립해 효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매년 강연이나 설교 때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모니 운동을 강조했다. 두 이사장 부부는 부부 특강을 통해 국민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물했다. 베스트셀러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를 출간했다. 국제기대 책기구와 인간개발연구원 등 많은 단체의 이사장을 맡아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원호 심진화 부부는 '올해의 개그맨 부부상'을 받았다. '웃찾사' 출신 심진화는 '개그콘서트' 출신 김원호와 지난 2011년 9월 결혼에 골인했다. 부부 금슬이 매우 좋다. 매년 '부부의 날' 인증샷을 SNS 등에 소개한다. 기부와 선행에 앞장서는 모범 부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올해의 국제 유튜브 부부상'은 유진우 레이커들이 받았다. 이외에 '양팔 없는 마라톤녀' 김황태 씨 부부, 배구 선수 출신으로 소아마비 여성을 아내로 맞아 34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이천근 씨 부부 등 10여 쌍이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 세계부부의날위원회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부인을 '올해의 세계 지도자 부부상' 수상자로 선정·발표했다. 지난해 이상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부가 받았다. 젤렌스키 부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도전을 심어주고 SNS

메시지를 통해 지원을 호소, 전 세계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다.

尹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안미 적극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단명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위협에도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북 코로나 ... 지원 준비"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역 관련 지원을 즉각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21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코로나19 발병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현지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확진자 규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지원 물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 백신 공동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관련해 지원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백신을 제공해 국제 백신접종 목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VO에 전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백스는 지난해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와 중국산 시노백 백신 등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도 AZ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코노백스'를 다시 배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돈웰은 19세기 남 장로교의 뛰어난 개혁주의 설교가 및 신학자이며, 동시에 남부의 구학과 (Old School) 지도자였다.

미국의 남부 역사 및 노예에 대한 뛰어난 역사가인 유진 제노비스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Eugene Genovese and Elizabeth Fox-Genovese)는 제임스 돈웰을 "미국 남북 전쟁 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South's most formidable theologian)로 칭했다.

돈웰은 South Carolina College (나중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를 19세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돈웰은 북부 뉴잉글랜드의 문화와 하버드 대학의 신학을 좋아하지 아니했다.

돈웰은 South Carolina College에서 가르쳤고, 1851 대학 총장이 되었다. 나중에 조지아의 컬럼비아 신학교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설교학 (Didactic Theology)과 논증 신학 (Polemic Theology) 교수가 되었다.

1861년 미국의 남부 장로교회들은 노예문제, 교회 정치,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시민전쟁) 때문에 당시 미국 장로교회로 (당시 PCUSA, 나중에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북 장로교회가 된다)부터 탈퇴하였고, 분리된 남 장로교회의 명칭은 PCUS (Presbyterian Church in United State)가 된다.

1861년 미국의 남부 장로교회들은 노예문제, 교회 정치,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시민전쟁) 때문에 당시 미국 장로교회로 (당시 PCUSA, 나중에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북 장로교회가 된다)부터 탈퇴하였고, 분리된 남 장로교회의 명칭은 PCUS (Presbyterian Church in United State)가 된다.

돈웰은 미국 장로교 구학과 (Old School) 유산을 변호한 투사이었다. 구학과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학의 기본으로 삼았다. 반

면 장로교 신학과 (New School)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많이 희석시켰고, 알미니안 주의를 수용한 수정 칼빈주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돈웰은 전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변증했고, 후세에 물려주었다.

돈웰의 신학을 다루면서 2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그의 교회론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웰의 노예에 대한 사상이다.

1839년에서 1861년까지 20년 이상 돈웰이 중심이 되어 장로교 교리, 교회 정치체계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가운데 북 장로교회 찰스

(예를 들면 주정부)가 되어야 하며, 북부에서는 국가의 중심은 연방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웰은 교회에 주어진 고유한 사역들 (선교와 같은 사명)을 다른 어떤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핫지는 교회가 총회 선교 기관과 같은 위원회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돈웰에 의하면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며, 위원회에 그 사명을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핫지의 편을 들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미국의 PCA & OPC)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핫지는 돈웰의 교회의 행정과 교회 정치의 개념이 너무 신앙성경의 문자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Thornwell's idea "ties down"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to what is pr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핫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장로교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회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자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에만 한정시키면서, 당시 보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 제도인 노예제도를 변호한다.

돈웰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분명하게 개혁주의의 두 왕국 (two kingdoms doctrine) 교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합법적 사역" (legitimate business)은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돌보는 일이나, 이 세상 나라의 정책에 얽매일 사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no mission to care for the things, and to become entangled with the kingdoms and the policy, of this world") 했다.

돈웰은 또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교회 (ecclesiastical)의 목적과 국가 (civil institutions)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회의 목적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과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속 정부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도덕성, 품위 그리고 질서유지 및 사회적인 평화로운 삶"에 있다.

그리고 돈웰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유일한 원칙과 방법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속 정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돈웰은 "교회의 권세는 오직 사역적이며, 선언적이다" 했다

"(the church's authority is "only ministerial and declarative"). 이 말은 교회의 권위가 법을 만드는 입법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권세를 주장했다.

여기에서 돈웰의 중요한 포인터는 교회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기관에서 개인 크리스천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돈웰의 사회 (국가) 참여에 대한 문제를 요약하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이 각자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찰스 핫지는 돈웰의 이러한 입장을 "애매모호하고, 극단적이며, 논리가 빈약하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핫지는 교회가 세속적인 일들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9면으로 계속)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 (10)

제임스 헨리 돈웰 (James Henley Thornwell, 1812-186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돈웰을 중심으로 장로교 교리, 교회 정치에 대한 논쟁 계속 그 가운데 북 장로교회 찰스 핫지와 벌인 논쟁이 최고의 정점

핫지와 벌인 논쟁이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찰스 핫지의 책, "What is Presbyterianism?" 과 돈웰의 "The Collected Writings of James Henley Thornwell"에 잘 나와 있다. 이 두 책을 근거로 해서 이 글을 쓴다.

당시 북 장로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찰스 핫지(Charles Hodge)이었고, 남 장로교회에서는 제임스 돈웰 (James Henley Thornwell)이었다.

핫지와 돈웰, 모두 동일한 전통적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철저히 사수한 구학과 (Old school Presbyterian)의 입장에 있었지만 교회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돈웰은 교회에서 선교 사역과 선교사를 파송해야하며, 핫지는 총회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의 중심은 당회 (그리고 당회가 모인 노회)가 되어야 하며, 각 교회 (당회)에 주어진 권세를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총회 선교부)에 위임할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개념은 19세기 미국에서 남부와 북부의 국가관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부는 국가의 중심은 지방정부

지만,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을 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공론화하였다.

이 문제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규정할 수 있다 (You may do all that the Scriptures do not forbid)"는 주장과 "성경이 규정하는 것만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다 (you can do only what the Scriptures command)"는 두 명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돈웰은 예배 요소와 교회 정치에서 "성경이 명하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핫지는 "성경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가 규정할 수 있다" 주장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공 예배에 관해서 논쟁이 계속된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는 "성경에 규정된 요소들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와 예배의 규범적 원리(The normative principle of worship)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것은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의 차이이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는 규정적인 원리가 (The regulative principle) 원칙인데, 1966년 존 프레임 (John Frame)이 규정적인 원리의 입장에서 예배에 춤 (dance)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혁주의

(Hodge, "as the Presbyterian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the church is permitted to do what is not forbidden in Scripture.")

그러나 돈웰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20.2를 인용하였고, 그리고 칼빈과 장로교회 신학자 윌리엄 커닝햄 (William Cunningham)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찰스 핫지 보다 더욱 정통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돈웰과 핫지는 교회의 권세의 범위 (the extent of the church's authority)에 대한 논쟁도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일에만 제한되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일에도 참여해야 하는가?

(Whether the church's authority was limited to addressing spiritual matters or whether it also extended to addressing civil matters.)

돈웰은 교회의 권세를 오직 영적인 일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당시 사회적인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노예문제가 대두되었다. 교회가 노예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돈웰은 교회의 권세를 오직 영적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423-9700, Fax: (702) 253-99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화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2) 802-1112, estroscoe@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성경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1부예배: 오전 10:0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어 예 배: 각 구역별로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세 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9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산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 배: 오전 11: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재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주일-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b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0)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렌제일교회)



3장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1)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행태는 대부분 죄를 이기기 위한 잘못된 방법과 수단들로 채워져 있다. 로마 가톨릭은 사역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더욱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죄를 이기기 위해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고안한 방법과 수단들을 복음의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2)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왜 그러는가?

(1) 하나님이 죄를 죽이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1) 성령은 우리 마음을 은혜로 넘치게 하고 육체의 열매에 반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게 만드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대조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그러면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 해답은 “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케 한다.

4) 죄를 죽이는 것이 오직 성령의 사역이라면 왜 성경은 인간인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권면하는가?

(1) 성령의 사역 방식은 우리 안에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로 선행을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분이시다(빌 2:13).

(2)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도록 역사할 때 죄를 이기는 행위를 여전히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받기에 적합할 때만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신다. 순종을 위한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

성령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죄의 뿌리와 습관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고 제거한다.

똑같이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모순이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죄를 죽이고 극복할 수 없다. 그들이 사용하고 주장하는 방법과 수단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잡다한 고해적 행위들은 모두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정한 방법인 기도, 금식, 철야, 묵상 등과 같은 것들을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샘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을 샘 자체로 동일시한다. 의무는 건강한 영혼에게는 훌륭한 음식이다. 하지만 병든 영혼에게는 결코 약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어서”(겔 11:19). 실로 이런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방법은 실패한다(사 57:17-18).

(2) 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사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그리스도는 오직 이 성령을 통해서만 성도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3)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일어난다(25절). 즉 우리 안에 내주 하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성령은 육체의 열매와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활동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역사하신다.

(2) 성령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죄의 뿌리와 습관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고 제거한다. 성령은 “심판하는 영광과 소멸하는 영”(사 4:4)이다. 성령은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전능한 능력으로 없애주신다. 실로 성령은 정육의 근원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다.

(3) 성령은 믿음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태만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죄를 자각하지만 그 죄를 대항할 힘이 없는, 가련한 영혼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기도와 방법과 의무들을 지어내어 자신들을 속박으로 얽어맨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된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 율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만다. 단순히 죄의 표면의 면죄만 떨어질 뿐이지, 또다시 죄와 대면하게 된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욕심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채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런 노력 자체도 하지 않는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5) 떠나 보내세요 (Let it go)

“지난번에 참석했던 분들 중 몇 분이 안 보이네요. “20여 년의 목회에서 조기 은퇴하고 도와주시는 목사님께서 낙담한 표정으로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들어오고 나감에 익숙하셨을 테지만 훨씬 더한 싱글 모임에 의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싱글 사역에 뜻을 가지고 감당해 보겠노라고 시작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보고자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믿음”

싱글들, 아무래도 움직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대상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은 그 간의 동료애(?)가 있어 계속 참석하려 해도 상대방의 만류로 떠나는 경우, 혹은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여 둘러보고는 떠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생업 일로, 이밖에 대체로 강인해진 성격으로 잘 부딪치는 이유라고 할까요. 어느 날 안 보일 때 물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과 함께 좀 더 신앙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진 후에 떠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것에 대해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쏟았던 정을 어느 만화 영화의 주제곡 가사처럼 ‘let it go’,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힘겨울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 거리의 수양관을 향해서 갈 경우 차를 줄여가니 함께 가실 분은 출발 장소로 오시라 했을 때 한 분이 데리러 오길 원했습니다. 먼 거리 운전해야 되니 안된다고 말했지만 떠나기 전날 밤, 다시 전화로, “조금만 돌던 가는 길인데...”,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약속 장소로 오시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그래 내가 좀 더 수고하지, 아니야 전체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결국은 해 뜰때에 전화해서 픽업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수양회 다녀와서는 엄청난 피로감에 놀리게 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쓰이는 시사영어, boundary 끝 경계를 정해야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만큼 가끔 개인이나 자신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자들 사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두 달에 한번 수양회를 갈 경우 참가자들에게 최소한의 숙박비를 부탁하는 데 충분히 능력 되는 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사도바울께서 쓰신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라는 말씀처럼 아무쪼록 싱글들과 함께하고자 시작했던 인도자들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마음에 힘든 것, 섭섭한 것 다 날려 보내며 (let it go... It's time to set what I can do) 땀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1-2202, www.nscfca.org 1700 S.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ver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게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23)737-9079, Cell: (213)215-86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f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Valencia Dr., La Habra, CA 90631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령강령예배: 오전 9:15, 11:30 성령강령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9-4500, www.goc.org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a-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45(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www.episteam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3일 24시간 온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강령예배: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o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종은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목요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8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6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유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s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600-2948, dckc.kim@cbc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아한인교회)

KAPC 46회 시카고 총회 후기 축제가 된 Amazing 총회

아, 나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것일까? KAPC 제46회 시카고 총회를 개최하면서, 나는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총회원들 앞에서 환영사를 해야 했다. 총회 환영사는 몇 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환영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전통적인 규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색다르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했다. 감동 없고 영혼의 울림도 없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심과 의미를 담아서 말할 것인가, 나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물가와 숙박비는 고솜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총회 참가비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총회 참가비에 비행기 요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회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 부부는 교회로부터 총회 참가비용 전액을 제공받지만, 어떤 총회원께서는 교회로부터 총회 참가비용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총회원께서는 일 년에 한번 총회에 참석

하는 것이 유일한 나들이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총회 참가비가 비싸지고 비행기표 값이 더 오른다면 과연 몇 분이냐 총회에 편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 나에게 이런 오지랖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총회원들 앞에서 몽상가 돈키호테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거룩한 환영사 대신에 나 자신이 영혼한 망상가임을 고백하면서, 새로이 임기를 맡은 총회장님의 희생, 중부노회 산하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넓치는 후원들, 그리고 중부노회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수고 등을 주절주절 말씀드렸다. 그래서 내심, 미래의 총회 준비위원회도 후원금 모임을 통해서 총회 참가비를 저렴하게 책정해 주기를 원했고, 은혜와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총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돈키호테 캐릭터로 환영사를 하였다. 나는 아내로부터는 몽상가란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내 가정에서는 엉뚱한 일들을 종종 저지른다. 하지만, 나는 종종 장소에서는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고,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대충

앞으로 밀어서 세워주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성악에 소질이 없다. 내 66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공중 앞에서 독창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하고 얼굴을 가리는 편이고, 예배 인도 시에 찬양도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편이다. 초기 영향 (Initial Impact) 이란 말이 있듯이, 모임의 시작 시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총회 분위기가 조성되기 원했다. 그래서, 내 일생 단 한번 주어지는 시간에 팬데믹으로 힘든 중에 계시는 총회원들을 위로하고 웃음을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독창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총회 준비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Amazing Grace(My chains are gone)" 찬양을 바쳐 울려퍼지니 나의 둔한 두뇌가 그 어려운 영어 찬양을 기억해 주었다. 녹음된 찬양 연주를 준비해서 그 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음색의 연주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더니 찬양을 반주

가 날뛰기를 하였다. 아, 그 당혹감이란... 그런 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모면할 수 있던 말인가? 총회원들로부터는 내려오라는 박수와 격려의 박수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광대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 끝까지 광대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찬양 반주를 틀어 달라고 오디오 담당자에게 투정 부리던 요청하였다. 이번에는 제법 괜찮은 음색으로 연주가 흘러 나왔다. 그런데, 이 무슨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찬양을 절반 정도 불렀을 때 이번에는 찬양 반주가 똑 끊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디지털 기계와 아닐라 그 음악의 상호 충돌 때문으로 짐작된다. 아, 그 순간만큼은 원조 돈키호테가 무대 위에 섰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찬양을 이어갈 배짱은 없을 것이다. 총회원들의 뇌리 속에 나는 영원히 광대로 남을 것 같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총회원들에게는 내가 보편적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짝퉁 돈키호테로 기억하실 것 같다. 회기가 끝난 후에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총회원들이 계셨다. 반면에 어떤 총회원들께서는 저의 의도를 조금 알아주시는 것 같았다.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다: "진실로 Amazing입니다.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 찬양을 끝까지 들었으면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고장 난 찬양 반주 때문에 더 잊지 못할 찬양이 되었습니다", "미안성으로 마친 찬양이라서 여운이 더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고장 난 찬양이 저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축제가 된 Amazing 총회입니다", "이런 총회라면 매년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모님들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표현해 주셨고, 많은 사모님들께서는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감사의 말씀들을 저에게 전해 주시기에 바빴다. 나는 타인으로 부터 칭찬을 들어도 쉽게 믿지 않는 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사 치레로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나는 말 한마디에 희비의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짧은 말들은 지금도 진실성 있게 내 마음에 소리가 남아 있다(아, 이런 글을 쓰는 내가 더 못하게 느껴진다).

dik0184@yahoo.com



퍼스트펄컨으로 선정된 9단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GBC) 나눔On캠페인 공개모금

퍼스트 펄컨(자선단체) 5만불, 우크라이나 5만불, 이외 난민 5만불 지원예정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가 지난 5월 3일, 8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나눔On캠페인 공개모금 생방송에 많은 선교회원 및 청취자의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였다. 5월 4일 기준 집계된 총 후원금은 \$148,301으로 우크라이나 긴급지원을 위해 5

만불, 이외 난민사역 선교사에게 5만불,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데 5만불 가량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서진택 선교사에게 \$7,000, 김교역 선교사, 정광선 선교사에게 각각 \$10,000, 요르단 난민을 위해 사역하는 최요셉 선교사에게

\$5,000, 김석환 선교사에게 \$10,000을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및 난민사역 선교사에게 총 \$42,000을 긴급 지원하였고, 해당 지원분은 금년 12월 3일까지 연중 신청을 받아 상시 지원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앞서 헌신하는 자선단체(퍼스트펄컨이라 명칭) 4단체를 추가 선정하여, 지난 12일에 선정된 9개 자선단체와 언론사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한 퍼스트펄컨 지원금 수여식 및 언론사간담회에서 총 9단체에게 각 사역지원금 \$5,000을 전달하였다. 선정된 9개 자선단체는 △푸른 초장의 집(원장: 빅토리아 홍), △무지개 가족 선교회(대표: 이지혜 선교사), △Seesaw Communities Inc(대표: Sam Yoon),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 △반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남가주말알선교회(단장: 이종희 목사), △LA One Church(담임: Chan Kwak 목사), △하모니드림센터(대표: 황인주 목사),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등이다. (기사제공: GBC복음방송)

교육자이신 그리스도...

(5면에서 계속)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

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

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히 12: 5-11). 이 본문에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 이상의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교육자이신 은혜로운 그리스도께 배우고 영혼을 훈련하라는 주님의 초청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개혁주의신학의...

(7면에서 계속)

실제적으로 찾지와 돈웰이 사역했던 19세기 미국 사회에는 남북의 문제, 노예의 문제, 연방제도와 지방정부의 권한의 문제 등, 많은 이슈들이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다. 찰스 핫지는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이 관여했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사회 이슈들을 설교와 글들을 통해

발표했다. 찰스 핫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회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성경적인 진리와 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노예 제도나 노예무역에 관하여,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기타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국가, 사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contrary to the word of God) 된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여야 한다" 했다.

찰스 핫지는 돈웰이 부당하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제한한다고 그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핫지는 돈웰이 교회가 영적 기관이기에 세속 정부의 어떠한 행동 (국가 정책)에 대하여 판단도 할 수 없다"는 돈웰을 비판했다. (다음호에는 돈웰의 성경적인 노예에 대한 사상을 알아보겠다) KHL0206@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HI, and Mexi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동부교계 게시판

프라미스코회 신앙회복집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크라이스트를 위한’ 신앙회복집회를 프라미스코회에서 개최한다. ‘주와 동행 (Walking with Jesus)’라는 주제로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6/10(금) 오후 8시, 6/11(토) 오후 7시, 6/12(주일) 1, 2부 예배에 말씀을 전한다.

▲ 문의: 718-321-7800

성전건축 후원을 위한 선교 골프대회

갈보리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모퉁이들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선교골프대회를 개최한다. 6월 21일(화) 등록 11am, 샷건 12pm, Meadows Golf Club (Lincoln Park NJ)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20이며 점심과 저녁,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 문의: 이장훈 안수집사 646-321-4996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등록 3차 마감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3차 마감일이 5월 31일로 다가왔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 (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 15:12)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용렬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비: \$250 (식비포함)

▲ 문의: kwmc.usa@gmail.com, http://kwmc2022.org, 한국: 070-4610-1346/ 미주: 1-714-603-7192

로잔 선교운동과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준비대회

로잔 선교운동은 미국과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스토틀 목사가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찾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발견하려는 취지에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차 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에 열리는 4차 로잔대회는 5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해로 한국에서 ‘함께 듣고 모이는 행동할 기회’의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다.

이에 4차 로잔대회를 위한 준비대회가 뉴욕 프라미스코회에서 6월 14일(화)~17일(금)까지 150여명의 국제대표들이 모여 기도로 준비한다.

특히 6월 16일 오전 10시에는



뉴욕 교계의 목회자들과 선교에 관심있는 이들을 모시고 로잔 운동을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리: 홍현숙 기자>

KPCA 제46회 총회

(1면에서 계속)
△총회장: 박상근 목사(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 △목사부총회장: 서명성 목사(팔로마한인교회), △장로부총회장: 이화영 장로(벤투버삼성교회), △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장로교회), △부서기: 강세훈 목사(버지니아로교회), △회록서기: 박용진 목사(어스틴제일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이진만 목사(파라과이 남미교회), △회계: 한성수 장로(뉴욕 넘치교회), △부회계: 백남옥 장로(다우니제일교회), △영문회록서기: Charles Lee 목사가 선출되어 1년간 섬기게 되었다. <기사제공: 해외한인장로회>



Midwest University 2022 학위 수여식이 거행 되었다.

Midwest University 개교 36주년 기념 음악회, 학위수여식

세인트루이스 본교 정진경 박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열려

올해로 개교 36주년을 맞이한 Midwest University(설립자/총장: Dr. James Song)는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식전 행사로 졸업 세미나(특강)가 열렸으며, 18일에는 설립 36주년 기념 음악회로 '2022 Midwest Concert'가 진행되었다. 특히 음악회 마지막 곡은 음악과 교수들과 출연진들, 그리고 모든 청중들이 함께 함으로써 Midwest University 설립 36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음악회가 막을 내렸다. 19일 오전 10시에 Dr. Earl Haskins (본교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2022년 학위수여식은 고홍식 교수의 기도, 이사장 Dr. Lindell F. Shumake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메시지, 총장이신 James Song 박사의 격려사, 그리고 Richard West 미주리주 하원의원과 Dr. Bryan Spencer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축사, 본교 이사 Dr. Stephen Combs의 축사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36명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배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Columbia College와 Midwest University 대학의 MOU 체결의 시간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체육대회

뉴저지 목사회 종합 우승

미동부 연합 한인목사회 체육대회 5월 23일 월요일 뉴저지 한소망교회(장세훈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에 시작된 본 대회는 팬데믹 이후 2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열리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4회 대회에 참가한 5개 주 목사회는 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으로 총 160여 명이 참가했다. 종목별 결과는 축구 우승 뉴욕과 준우승 필라, 배구 우승 메릴랜드와 준우승 버지니아, 족구 우승 뉴저

지와 준우승은 버지니아, 탁구 우승 뉴저지와 준우승 뉴욕이었다. 특히 뉴저지 목사회는 2010년 출범 후 처음으로 대회 호스트와 종합 우승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모든 순서는 한소망교회에서 가진 폐회에 배 후 시상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내년 2023년부터 대회를 호스트 하는 주는 버지니아, 뉴욕, 필라, 메릴랜드 순으로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48회기 뉴욕교협, 2022 뉴욕선교대회 개최

48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은 “뉴욕을 선교 도시

로 (New York as Missionary Church)”라는 주제로 5월 26일 목요일부터 4일간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에서 개최된다. 뉴욕 교협은 “뉴욕선교대회”를 위하여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왔다. 지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이후 1차 준비 기도를 4월 20일에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가진 것으로 시작하여 5월 25일 마무리 기도를 5월 25일 마무리 기도를 통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AM 1660 생방송 모금 운동과 18일 수요일에 뉴욕선교대회 골프대회를 통하여 모금 운동을 진행해 왔다. 뉴욕 교협 모든 회원 및 회원들의 기도와 수고의 결실로서 본 대회는 총 27명의 현지 선교사와 사모들을 초청하여 주강사의 선교 간증집회 및 새벽기도회, 전체 선교사 간증 시간, 강의, 각 나라 선교 방 찾아가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9일 주일 저녁까지 진행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대회장: 김희복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김학진 목사, 이준성 목사
주강사: 김용의 선교사, 강사: 김남수 목사, 고석희 목사
▲ 문의: 교협사무실 (718) 279-1414, 총무 (631) 327-8046

제65차 IEA(국제복음주의협회) 목사 안수식 거행

초교과, 세계 각국의 전문 분야 사역자 7인의 목사 안수식

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목사 후보자 교육과 제 65차 목사 안수식이 5월 16일-19일 IEA본부(St. Louis)에서 거행됐다. 이번 목사 안수자 7명은 여러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 미국과 한국, 우간다, 인도, 코스타에서 선교 사역과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이들로써 IEA를 통하여 목사고시를 치르고 특별 교육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현재 IEA에서는 교과를 초월하여 전문분야에서 사역하는 남, 녀 사역자들을 위해 목사 안수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IEA는 세계지도자 양성을

통한 세계선교를 위해 지난 1983년도에 창설(설립자 Dr. James Song) 되었고 1986년도에는 Midwest University와 2001년에 GGU를 설립하여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IEA 산하에 세계크리스천스쿨 네트워크(WCSN), 글로벌리더십 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구(IEC) 등 많은 기관이 있으며, 세계 전략지에 인재양성 기관을 세워나가고 있다.

▲ 문의: (636)639-9221, 070-8690-2662, 이메일: iewa@midwest.edu, web: www.iewa.org

<김재상 기자>



IEA 국제복음주의협회에서 65차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2022년도 글로벌 리폼드신학교(GRS) 학위수여식이 거행 되었다.

글로벌 리폼드신학교(GRS) 학위수여식 거행

상관문화사역 철학박사 1인, 목회학박사 3인, 교육학석사 3인 학위 수여

지난 5월 20일, 금요일 글로벌 리폼드신학교(Global Reformed Seminary, GRS) 2022년도 학위수여식이 GRS 캠퍼스인 애틀랜타 제일장로교회에서 거행되었다.

미시시피주 잭슨에 위치한 개혁주의 신학교의 명문인 리폼드신학교(RTS)의 선교학 박사 과정을 계승하여,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열방의 교회 재현성화 및 선교 활성화를 위해 일할 신실한 주의 종들을 교육하여 파송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GRS는 지난 2014년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GRS는 오직 성경과 바른 신학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상관문화사역신학(선교학) 중심 선교대학원이다. 현재 GRS는 상관문화사역 철학박사 과정(Ph.D./Intercultural Studies and Ministries), 상관문화 목회학 박사 과정(D.Min./Intercultural Ministry), 그리고 상관문화 교육학 석사 과정(M.A./Intercultural Education Ministry)을 제공하고 있다.

엄격한 논문심사를 거쳐 금년에는 일곱 명의 학위수여자가 나오게 되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GRS 제1호 상관문화사역 철학박사에 김도

윤 목사(멕시코), 상관문화 목회학 박사에 손규하 목사(한국), 임병순 목사(뉴욕), 이대명 목사(플로리다), 그리고 상관문화 교육학 석사에 정인수 목사(뉴욕), 김진정 전도사(뉴욕), 이경남 전도사(뉴욕)이다.

원장 김은수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2022년도 학위수여식은 운영이사장인 이재근 장로의 기도, 제자도와 실천신학 교수인 도나후 박사(Dr. Charles H. Dunahoo)의 설교, 총장인 알렌 커리(Dr. Allen Curry) 박사의 학위 수여, 동문인 장민욱 박사(뉴욕)와 이사장인 이석주 장로의 축사, 운영이사장 이재근 장로의 후딩(Hooding), 내빈인 김영환 박사의 축사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현재 GRS의 교수진은 각자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학문성과 사역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상관문화 박사 및 석사 과정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신실히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수학하고 있다.

▲ 문의: 원장 김은수 교 (770-827-9689, globalekim@gmail.com), 행정간사: 최테리 선교사(globalreformedsem@gmail.com)

<김재상 기자>



뉴욕선교대회 후원 골프 대회가 윈드 와치 골프 코스에서 열렸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장으로 관통하는 성경의 예배사’

남가주목회자세미나...강사 예정대신 이정현 총회장

예장 대신 총회장 이정현 목사가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18일(수) 오전 11시에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인도했다. 류당열 목사 사회와 박효우 목사(풍성교회)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이정현 목사는 ‘한장으로 관통하는 성경의 예배사’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의미를 설명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 구약에서 기록된 히브리어와 신약에서 기록된 헬라어를 비교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정현 목사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나아가 형식에 맞추어 드렸다”며 “이는 신약보다 감각적이며 생생하고 적극적이었지만 형식과 습관에 치우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파게 해드렸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어 신약의 예배에 대해 소개하면서 “구약 말에 등장한 회당 예

배는 신약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 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세례와 성찬)를 첨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교회의 모든 예배가 천상 예배처럼 되었으면 한다. 계시록 4-5장에 기록된 천상예배는 아름답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다. 따라서 그 예배가 지상가운데 있었으면 하며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예정대신총회 총무 조강신 목사와 미주노회 오범석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으며, 이태환 목사가 축사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을 하고있다.

은혜한인교회 창립40주년 기념 부흥성회

“신앙은 어떤 사상 철학 이념이 아닌 실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꿈을 꾸며 이루며 땅 끝까지’라는 주제로 19일(목)부터 22일(주일)까지 순회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 사회로 시작된 22일(주일) 3부 예배는 허용조 장로가 기도했으며 은혜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은혜한인교회가 1980년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어 순회보 목사가 ‘주님나라 위한 뜻을 정하고(단 1:8-9, 17-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젊을 때 결심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결심이 변질된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신앙은 어떤 사상 철학 이념이 아닌 실제이다.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불려간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나라에서 사는 첫날이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적대시 하는 이 세대, 우리의 고향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이다. 그곳에 우리의 집이 있다.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뜻을 정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의 상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길 축원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교회창립 40주년 축하 케익 커팅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한기홍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장으로 관통하는 성경의 예배사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GMS 총회세계선교회 미주 AMTC 제 9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GMS 총회세계선교회 미주 AMTC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

독자적사역이 아닌 팀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

GMS 총회세계선교회 미주 AMTC 훈련원(훈련원장 이병구 박사)은 지난 19일(목) 오전 11시 미주 AMTC 제 9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을 갖고 11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 선교사 임명을 받은 11명의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약했다. GMS 총회세계선교회 산하 미주 AMTC 선교사 훈련원은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정식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30여명의 선교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선교사들에게 권면한 박기호 교수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 받은 동역자들”이라며 “선교의 일선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역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분량에 따라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이라며 “공동체를 해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독자적 사역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 사역, 팀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

고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AMTC 이사회 총무 문상무 목사의 인도로 AMTC 이사인 이상돈 목사가 ‘명령과 사명(마28:19-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임명식은 박무용 GMS 증경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GMS AMTC 2022년 수료 및 임명장 수여자이다. △채수창(AMTC 7기, 캐나다지부):도시 빈민, 홀리스, 중독자사역, △김해미(AMTC9기,태국북부 2지부):동서선교회 R&D, 로템 멤버케어, △김경미(AMTC9기, 미국동남부지부):MK멤버케어사역, △이선영(AMTC 9기, 미국동남부지부): 선교사의로 멤버케어사역, △김형일(AMTC 9기, 미국서부지부): 선교사멤버케어사역, △박희용(AMTC 9기, 미국서부지부): 선교동원사역, 말라위장학사역, △이종희(AMTC 9기, 미국서부지부): 남가주말일선교단 장애인사역, △김정기(AMTC9기, 미국서부지부): 북가주말일선교단 장애인사역, △박종진/이미정 부부(AMTC9기, 이집트지부): 이슬람 R&D사역, 폼피 연구사역, △이주남(AMTC9기, 미주지역협력선교사): 태권도 사범사역, △심용섭(AMTC 9기, 미주지역협력선교사): 멕시코 교회개척사역

(정리: 박준호 기자)



유수연 캘리포니아 67지구 공화당 하원 후보 음악회 콘서트에서 유호보가 후원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름성경방(구약)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지부장 김덕수목사)에서 평신도를 위한 2022 여름 성경방(구약)을 6월14일-9월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구약 1독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교재는 성경,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구약 위크북, 구약 네비게이션이다. 강사로 박준자 권사, 김소연사모, 곽혜숙 사모, 여현정 사모가 섬긴다.

▲ 문의: (714)553-7882

KAPC개혁신학교 2022 학위수여식

KAPC개혁신학교(총장 이정현 박사) 2022 학위수여식이 6월4일(토)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749-0577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학위수여식이 6월6일(월)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525-0088

기쁜우리교회 장학생 모집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크리스천 학생들을 위한 2022년도 제5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본인의 학교와 집주소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외국 혹은 타주에서 온 남가주 내 2년제 대학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원서는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받으면 된다. 원서는 이메일(scholarship2022@joyfulccc.org)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6월11일까지 받으며 결과는 8월1일, 장학금 수여식은 8월11일에 하게 된다.

▲ 문의: scholarship2022@joyfulccc.org

미주장신대 2022년 42회 학위수여식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2022년도 42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4일(토) 오전 10시 미주장신대학교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 문의: (562)926-1023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제31회 학위수여식이 6월4일(토) 오후 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388-1000

달라스연합감리교회 학생부 여름수련회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철 목사)는 2022 학생부 여름수련회를 6월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자마 글로벌 캠퍼스(22392 FM 16, Lindale, TX)에서 갖는다.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이며 주제는 ‘By Joyful in Jesus(살전 5:16-18)’이다. △‘One Heart, One Mind(행 4:32)’라는 주제로 열리는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이진성 목사(영락장로교회 EM)가 강사로 참여한다. 1차 등록 70달러(5월31일), 2차 등록 80달러(6월1일 당일까지)이다. 형제나 재매가 함께 참석할 경우 \$10씩 디스카운트가 있으며 3명이 참석할 경우(첫째 \$70, 둘째 \$60, 셋째 \$50 등 총 \$180)이다.

▲ 문의: (972)258-0991

세미한 썸머스쿨 안내

2022년 세미한 썸머스쿨(주제: Level Up!)이 6월13일부터 7월1일까지, 7월11일부터 7월29일까지 각각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1-9학년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 문의: emihanSummerSchool@semihan.org

유수연 후보 후원음악회 성황

교육이슈 전면으로 내세워 학부모들의 호응 뜨거워

공화당 소속의 유수연 캘리포니아 67지구 하원 후보 음악회 콘서트(가 21일(토) 오후 6시 30분에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 하우스 그랜드 볼룸(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렸다. 유성국 목사 기도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올해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0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영 김(공화) 의원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여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유 후보의 당선을 독려했다. 현재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인 유 후보는 9년째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8세 때 LA로 이민, 클리포드 초등학교-킹 주니어 고교-존 마셜 고교-UC어바인-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졸업했으며 25년간 목회할

등을 해왔다. 25년간 세리토스 소재 게이트웨이 입시학원 운영했다. 목회자 남편과 딸 4명을 둔 어머니인 유 후보는 뒤통을 출마했지만 교육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한인교와 아시아안을 물론 라틴계 학부모들 지지까지 받아내며 단숨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유 후보는 △어린이들의 성전환 및 동성애 교육 반대 △비판적 인종이론(CRT) 반대 △학부모들의 교육 커리큘럼 참여 △공권력 강화 통한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47(일부 중죄를 경범죄로 완화하는 법) 반대 △유류세 인하 등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다. 콘서트는 박트리오와 CTS 스트링스 앙상블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교회 VBS 열린다

남가주한인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VBS)가 6월2일 선한목사교회부터 일제히 열린다. 올해 VBS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밤차 잔치”, ‘Vonumental(Celebrating God’s Greatness)’, Spark Created in Christ, Designed for God’s purpose,

Make Waves, Mission Possible, Monumental, Spark Studio, Jerusalem Marketplace 등이다. 다음은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VBS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날짜	교회	문의
6/2-4, 16-18	선한목사교회(고태형 목사)	(909)591-6500
6/8-11	디사이플교회(고현종 목사)	(949)502-4923
6/10-12	남가주든든교회(김현인 목사)	(213)254-8165
6/10-12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818)366-0089
6/12-26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목사)	(562)500-8616 (213)255-0541
6/14-17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818)832-6628
6/14-18	베델교회(김한오 목사)	(949)854-4010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858)874-2412
6/15-17	ANC은누리교회(김태형 목사)	(818)834-7000
6/15-18	엘바인은누리교회(박신웅 목사)	(949)261-9100
6/15-19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626)277-7697
6/16-18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	(323)466-1234
	충현선교회(민종기 목사)	(818)549-9191
6/17-19	한빛교회(차광일 목사)	(562)315-3177
6/18, 21-24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310)370-5500
6/20-2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714)893-1652
6/21-24	오렌지한인교회(피세원 목사)	(714)871-8320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909)622-2324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310)618-2222
6/21-25	선한정기교회(송병주 목사)	(626) 913-6611
6/22-24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714)772-7777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562) 653-0168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213)749-4500
6/22-25	세리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562)877-7777 (562) 860-5451
6/23-25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213)383-4982
6/24-26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	(323)221-9531
6/28-30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	(909)590-3722
6/28-7/2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7/5-8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201)994-5894
7/5-9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정상용 목사)	(858)279-9191
7/21-22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213)273-6634 (213) 220-1853 (213) 999-1847

이단들, 청소년 교육·헌혈·교리 내세운 '포교 광고' 열 올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과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대표 박옥수) 은혜로교회(교주 신옥주)가 최근 주요 일간지에 각각 청소년 교육과 헌혈 봉사, 교리서를 앞세운 전면 광고를 내면서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내세워 다가오는 만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이들 조직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조직의 부정적 이미지를 쇠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기소선은 지난달 25일 국내 대표 보수 일간지에 '성경세미나'와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홍보하는 전면 광고를 냈다. 기소선은 광고에서 박옥수 대표가 지난 3월 이스라엘과 잠비아, 말라위 등 아프리카 7개국을 방문했고, 각국 정상이가 그가 전한 청소년 마인드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옆 옆 보면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음에 의한 구원, 회개, 죄인 문제' 등으로 대한예수교장

로회(예장) 통합과 예장합동 등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리를 이들 나라에 전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해당 광고에는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단체를 주축자로 내세워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 기성 교회 성도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

신천지와 은혜로교회 역시 지난 20일 같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다. 신천지는 광고에서 지난달 소속 지도부와 신도를 대상으로 벌인 헌혈 행사에 2주 만에 1만8000여명이 동참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2년여 전, 신천지가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만큼 사회봉사를 앞세워 조직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신들의 그릇된 교리를 앞세워 '타자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폭행하게 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은혜로교회는 사실상 신옥주 교주의 교리를 담은 책 '이제 온

전하는 잠잠하라'를 홍보했다. "영원한 언약을 파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며 정통 개신교 교리와 구분이 어려울 법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진리의 성령인 신옥주'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해 전형적인 이단 논리를 담았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결국 내부 신도들로부터 짜낸 헌금으로 엄청난 광고비를 충당하는 것"이라며 "이단들이 반복해서 광고를 내는 건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줘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만큼 교회 밖에서 정체불명의 단체가 주관하는 성경공부나 집회, 수련회에 함부로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디어 대표 조민음 목사는 "신천지의 경우 코로나 확산 당시 전 언론이 신천지 때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 와서 그들 광고를 버젓이 신는 것은 돈이 면 뉘든 저하겠다는 논리"라며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미수교 140돌 감사예배... "세계 선교 협력" 공동선언문

"북한·동아시아 선교 힘 모으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의 기독교인도 북을 전파라는 공동의 사명을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미수교140주년 한국기독교기독교기독교(한미사·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기념감사예배를 열었다. 감사예배는 1882년 체결된 조미수교통상조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다.

설교를 맡은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한·미수교 이후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북을의 문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선진과학에 눈을 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위해 애써주길 기대한다"면서 "북의 근원이 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이룩과 선진

경제 번영이라는 열매를 세계에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예배에서는 한·미 기독교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선언문도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한·미 기독교는 아직도 북을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북한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반도의 북을적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드 래함전도협회 회장과 로버트 아더홀트 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 등 미국 기독교 인사들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다.

"사회복지에 힘쓰고 싶다" ... 목회자들

'6·1지방선거' 도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명의 목회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목사 6명, 전도사 1명, 선교사 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에 나선 목사들은 평생 해오던 사회복지 사역을 제도권 내로 들어가 더 다양하게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교단에 따라 목사가 당선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미자립교회 사역중인 경우 교단의 겸직 금지 의무에 적용받지 않는다.

경기도의원 선거에는 무소속 김동문(57) 목사와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56) 목사 2명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해빌리지 살렘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남양주 노인 복지전문가로 통하는 그는 "개척한 지 26년 차 목사로 사회복지 중심으로 목회를 했고 교

회가 사회복지 관련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싶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후보는 순복음총회신학교에 재학 중이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구·시·군의회의원에는 모두 5명의 목회자가 출마했다. 부산 남구의원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전하는 허재영(68) 후보는 예장합동 부산화평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그는 35년 동안 부산 남구 특수학교인 구화학교에서 청각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목회 활동을 했다. 허 후보는 "사회복지 일을 하며 느낀 건 관공서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 구의원이 돼 더 신나게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의원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오지성(60) 목사는 성결대(신학과)와 대한신대원(목회학 석사)을 졸업하

고 현재 전북 군산시에 있는 예장대신 소속 오직예수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전남 화순군의원 선거에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선식(41) 목사는 광신대 대학원(철학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화순교육지원청 방과후 강사를 맡고 있다.

경북 경주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영식(73) 목사는 국제개혁신대원(목회학 박사) 출신으로 중남미 선교목사를 30여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배(71) 후보 역시 선교사 출신인데 기독교 소속으로 전남 해남군의원에 도전한다. 그는 미국 루이지애나 슬라이델침례신학교(신학 박사) 출신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에는 서울신대(신학과)를 졸업한 정시은(25) 전도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노원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순위 2번이다. 그는 현재 월광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목사 출신으로 당선 가능성이 컸던 김기성(63)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단일화에서 고배를 마셔 입후보하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1주년 기념·평화 메달 수여

(사)5·18민주화운동 유엔·유네스코등재사업위원회(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는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제 11주년 기념 및 평화의 메달 수여식'을 개최했다. 평화메달은 5·18기념재단 고

강신석 전 광주 이사장과 고 윤영구 이사장, 김양태 전 상임이사, 박성우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상규 한신대 이사장이 각각 받았다.

평화 메달은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과 6·25 전쟁 당시 사용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이다. 행사는 (재)5·18기념재단

(사)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한국종교인연대(URI) 세계한인 교류협력기구(W-KICA)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영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세계 인류의 자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을 더욱 가꾸고 소중히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노력이 계승 세대에 계도 자랑스런 역사로 공유되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헌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마을목회 '교회-세상' 접촉면 넓힐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역

재정·인력 부족에... '마을목회' 만만찮다

"지난달 국민일보가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알 수 있듯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세상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바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행복의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마을목회일 겁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 중 상당수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필요를 채워준 마을목회였다"면서 "마을목회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목회는 교회 활동이 세상에 드러나는 대표적 사역이다. 하지만 한국교회 상당수가 여전히 마을목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수가 지난 20일 발표한 '마을목회에 대한 목회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목회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내가 하는 활동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24~30일 기독교 조사기관인 지앤컴리서치를 통해 진행됐으며 설문엔 목회자 507명이 참여했다.

마을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된 항목은 '재정적 어려움'(21.4%)과 '인력 부족'(20.4%)이었다. 마을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관련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을 때에도 '인력, 재정 등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다. 어떤 마을목회 사역을 벌이는지 복수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독거노인 및 빈곤층 생활 돕기'(25.8%)였다. '지역 주민의 회의, 모임, 행사를 위한 교회 공간 제공'(14.7%), '지역 마을환경 개선 활동'(12.5%)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마을목회와 지역 복음화의 관계성을 묻은 항목인데 49.5%가 '마을목회는 지역 복음화가 목

표'라고 답했다. 절반가량이 전도를 위해 마을목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마을목회는' 지역 복음화와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활동'이라고 답한 비율도 47.1%에 달했다. 마을목회를 전도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전도의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1.9%였다. 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전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6%에 달했다.

마을목회가 교회 부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84.8%나 됐다. 실제로 3분의 1을 웃도는 35.2%는 '마을목회를 통해 성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마을목회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마을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독교 유권자 10명 중 8명... 교육감 후보

유권자, 정책과 종교적 신념 강조

교육감이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학교 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유권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다음달 1일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0명 중 9명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약 80%는 후보의 종교에 상관없이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0일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서울 영락교회에서 주최한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송실대 합승수 교수는 "한국교회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와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 교수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고 특정 정당과 정책을 공조할 수도 없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면서 "그런데 의도와 달리 정치선거처럼 후보자 선택에 정책보다 유권자 이념이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미션네트워크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기독교 유권자 7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권자 인식 조사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이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경험,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이다.

먼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교육감이 학교의 교사 등 인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들 중 '전혀 몰랐다'는 사람도 160명(21%)이나 됐다.

기독교학교의 교원 역시 교육감이 1차 선발한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73.7%나 됐다. '전혀 몰랐다'는 264명(34.6%), '몰랐다'는 283명(37.1%)이었다.

합 교수는 "교육감의 전반적 권한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했다"며 "기독교학교의 인사 1차 권한 위임, 학생들의 강제 배정 권한 등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 역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여부도 물었다. 올해 열리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

겠다는 응답자는 762명 중 704명(92%)이나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가(중복응답)를 묻는 질문엔 '후보자의 정책'을 554명(72.7%)이 꼽았고 '후보자의 도덕성'(364명·47.8%), '후보자의 종교'(222명·29.1%)가 뒤를 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엔 '교육적 신념'이 631명(82.8%)로 가장 많았다. '종교적 신념'(68%)과 '정치적 신념'(26.1%)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감 선거가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이유(중복응답)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건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이었다. 599명(78.6%)이나 됐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도 527명(69.2%)으로 많았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응답도 177명(23.2%)이나 됐다.

합 교수는 "성도들은 자신의 교육적 신념에 따라 투표하기를 원하며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종교적 신념을 우선에 뒀다"고 분석했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교육 정책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질문했다.

기독교 관점에서 교육감 후보를 평가하는 것을 두고 긍정

적 답변은 92.4%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4.6%(416명)나 됐고 '필요하다'와 '보통이다'도 각각 37.8%, 5.2%였다.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에도 긍정적(83.1%)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로 '후보들의 교육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475명(62.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감 선거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48.7%), '후보 초청 공청회·간담회 개최'(31.2%), '교육감 선거 관련 학부모 세미나'(28.7%)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책에 따라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도 82.2%나 됐다.

후보의 종교에 상관없이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가 328명(43%)로 가장 많았고 '적극 지지한다'도 299명(39.2%)이나 됐다.

합 교수는 "기독교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에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했다. 유권자 운동의 방향은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하며 이 같은 유권자 운동이 실제적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봉사·헌신 이웃 사랑 '스크랜튼 상' 제정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대 의대 동창회 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 성시열)와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은 20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재단 갤러리룸에서 '스크랜튼 상' 제정 및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스크랜튼 상은 이 땅에 온 최초의 외국인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학당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튼(1832~1909)과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1856~1922)의 선교 정신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이대 의대 졸업 동문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윌리엄 스크랜튼의 서거 100주년이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는 1885년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내한했다.

당시 정동에 '시병원'을 설립하고, 천민과 상인들이 살던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에도 진료소를 열었다.

동대문 진료소는 이대 의대 동대문 부속 병원과 동대문교회로 이어졌고, 남대문 진료소는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상동교회로, 서대문 진료소는 아현교회로 남아 있다.

특히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은 이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 개화기 여성 교육의 포문을 열었다.

협약식은 재단 김무정 이사장의 사회로 안대전 대총침례교회 안정근 목사의 기도, 이대 의대 동창회 정미라 총무의 협약 취지 및 스크랜튼 상 소개, 강덕영 이사장과 성시열 동창회장의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의 기초를 놓아 준 스크랜튼 모자(母子) 선교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상을 함께 제정하고 후원하게 돼 기쁘다"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대 의대 동문들이 사회와 국가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시열 동창회장은 "많은 여성 의료인을 배출한 이대 의대의 시작을 만들어 주신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이 제정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1988년 시카고의 무더운 여름에 휘튼대학의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한국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 미주 한인 교회 지도자들은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통한 미주 한인교회들의 성장과 부흥을 감사하며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1차 한인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 선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회를 기점으로 북미주 한인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더욱 잘 감당하고자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 (KWMC)를 창립하였다. 1970년대에 주로 이민하여 설립된 미주한인교회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선교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함을 사명으로 깨닫고 최초의 한인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대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는 미주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아메리칸드림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한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설교 강단에서 이민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상으로 선교사명을 부르짖게 된 것이다. 1987년에 미주 한인 교회 출신으로 신학을 마치고 안수받은 선교사를 처음으로 두 가정 파송한 당시의 미주한인교회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예산에 선교비 항목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생소했던 이민교회에서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교단의 높았던 벽과 지역의 거리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선교를 통한 연합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꿈꾸게 된 것이다.

둘째는 성도들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이다. 시카고까지 멀리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

서, 아틀란타에서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뱀을 타고 몰려온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선교대회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의 옷을 입고 나타난 선교사의 모습에서, 아마존의 정글을 누비다 참여한 선교사의 간증 속에서 함께 목소리를 다해 부른 찬양의 향기와 울부짖는 기도의 합성 속에서 피곤한 이민자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선교 사명자로 거듭나는 경험

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한인 선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게 하였다. 각 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방문의 초청장을 들고 모여든 152명의 선교사들에게 있었던 감격이다. 선교지로 파송 받을 때에 다시는 만나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순간의 감동,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서 난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주시는 위로, 선교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들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연합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선교운동을 통하여 실천된 것이다. KWMC 대회를 참석하고 귀국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선교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한국에서 동계선교협의회 (KWMA)가 결성된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KWMA가 유일하게 초교파적 연합 정신을 실천하는 협의체라는 것을 볼 때에 KWMC 대

회가 끼친 선한 영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 대회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매 4년마다 “목회자, 신학자, 남녀 평신도, 청년, 신학생, 대학생, 청소년 등의 선교 동반자들이 한 광장에 집결하는” 회를 2016년 제8차 한인 세계선교대회까지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때까지는 “비전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랑의 교제, 사명의 재무장,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영적, 인적, 재정적, 시간적, 선교역량의 촉진 (catalyzing), 동

원 (Mobilization), 번식 (Multiplying) 을 도모하여 한목표인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제(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성취를 위한 새 지평을 창출하기 위해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을 열었다. 그러나 제9차한인세계 선교대회는 팬데믹의 영향이 있어서 2년이 연기된 계기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9차한인세계선교대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역 교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로 찾아오는 선교대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선교대회가 열리게 된다. 2016년에 열린 8차대회까지 모두 대학의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는 처음 선교사 초청장 발행부터 도움을 준 빌리그래함센터가 있기도 하였고 한인선교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던 빌리 그래함목사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또한 4-5,000 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교회에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은 선교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대구

모의 대회를 준비하는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그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고, 특수한 선교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대회, 선교의 보편화를 꿈꾸는 회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인선교운동의 세대 계승에 중점을 두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선교는 수고하며 개척을 감당한 선교 개척 세대의 노고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헌신을 힘입어 세계선교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국 다음으로 다른 민족을 향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와 민족교회가 된 것이 없이 감사하면서 선교사 고령화의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각종 선

교 모임에서 소개되지 못했던 50대와 40대 선교사들이 1세대 선교사역을 계승하도록 소개가 될 것이다. 또한 부모를 따라 선교지에 나갔거나 선교지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전 20대 30대로 성장하였다. 이들이 중요한 선교의 세대임을 인정하고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하나의 회를 가지는 세대 계승의 장이 될 것이다. 많은 MK들은 이미 성장하여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선교는 부모들의 일로 여겨 지고 하고, 자신들의 선교적 삶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이들이 떳떳하게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의 시대에 적합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들이 부모들 세대와 함께 선교대회의 준비과정부터 함께 참여함으로써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갈 것이다. 여기에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장이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이 선교사명의 재확인에 있음을 알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MK 세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MZ 세대(미주의 2-30대)가 함께하여 한 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대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젊은 2-30대들이 전체 참가자의 약 1/3에 달하게 될 것이다.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빌딩의 장이 될 것이다. 세대별, 공통 관심사별, 선교사들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힘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온 분야의 다른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일하며 느낀 필요를 공감하고 동역 할 수 있는 교회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교사들의 사역이 미리 소개

되어 교회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선교사를 소개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형 선교대회에 참석하였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심 영역들의 공통점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AI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대형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은 좋는데 대회에서 자신이 품었던 느낌들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는 대회 이전부터 대회 이후에 이어지는 네트워킹이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특히 MK들이 제삼 문화권의 사람으로서 가진 글로벌한 경험들이 미주의 MZ세대(2-30대)와 함께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만들게 된다면 서로가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친구들이 될 것을 꿈꾼다.

이번 대회는 전문영역별 트랙 중심으로 열릴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종교 문화권이나 지역으로 나누어 선교적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적인 구분보다는 전문 영역적인

부분의 깊이와 포괄적이고 융합적 선교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팬데믹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개의 전문영역을 선정하였다. 디아스포라 현상에서 나타나는 제자 삼기, 플랫폼 선교, 교육선교, 문화와 미디어 선교,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BAM, 선교동원, 선교적 교회, 전방개척선교, 선교협력,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 MK를 통한 제자 삼기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트랙은 전체 약 9시간을 할당하여 다양한 워크샵과 토의 시간으로 나뉘었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선교대상으로서의 디아스포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대응을 잘해야 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선교 주제로서 디아스포라 현상을 바라볼 것이다. 미주 한인교회는 이미 선교 주제로서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며, 이러한 이해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져서 미주에 이민을 온 미중동종족이 변화되어 선교적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일까지 논의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빈민 구제 영역으로 이해되어온 도시선교 트랙에서는 도시선교의 이해, 역사와 전망에 이어, 구체적인 도시선교의 모델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효과적인 방안들이 소개될 것이다. 플랫폼 선교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글로벌 비즈니스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교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들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떤 선교적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인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분야는 아직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은 영역이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시의적절한 이슈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선교는 모든 영역의 교육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교육을 통한 제자 삼기의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MK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관심 영역이기도 하다. 문화와 미디어 선교 분야는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온 K-culture의 영향과 선교적 적용,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인 복음 전파 사역들이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제9차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맞으며 역사의 계승을 꿈꾼다

제9차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맞으며 역사의 계승을 꿈꾼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0강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출애굽기 - 민수기)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지만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없기에(사 66:1/ 행 7:49,50)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온 대제사장을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입니다. 절대로 성막의 그 까다로운 재료와 제작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막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히 8:5).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레위기와 민수기를 더하여 성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예표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까.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는 말 그대로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이방인의 개념은 혈통적 개념의 '육적 이방인'이 아닌 신앙적 개념의 '영적 이방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높이는 다섯 규빗으로(출 27:18, 38:18) 약 2.5m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백성들도 세상에서 세상적인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밖에서는 볼 수 없고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문'입니다. 성막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기에 사방에 문을

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문을 얻으리라'(요 10:7,9)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창 49:10/ 히 7:14) 오셨습니다(요 14:6/ 행 4:12).

그리고 성막 뜰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의 4색의 문인데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14:6), 자색은 '왕권의 색'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마 2:2), 홍색은 '피의 색'으로 '고난의 예수 그리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 롬 10:13)고 선포합니다.

번제단

이제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막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동쪽에 있는 문, 문턱도 없고 매우 큰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없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출 27:1-8, 29:38-46, 38:1-7).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속죄하는 곳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출 29:38-46).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히 9:22).

물두멍

번제단에서 하나님과의 담이 되었던 죄의 문제가 죽은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은 물두멍을 거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벧전 2:9).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역할은 '거룩한 삶'입니다. 번제단은 한 번 거치는 곳이라면 물두멍은 수시로 거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여인들의 눈 거울이었습니다(출 38:8).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수시로 살펴봐왔듯이 이제는 물두멍에 담긴 물을 통해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십자가의 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생명을 죽여 죄를

성막은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 번제단은 생명을 죽여 죄를 속죄하는 곳,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없습니다. 밖에서 성막을 보면 보이는 것은 오직 성막을 덮고 있는 짐승 가죽 덮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사 53:2) 하나님의

내면 훨씬 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오직 동쪽 방향에 하나만 있었고 바로 그 동쪽에 진을 친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민 2:3).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스도를 그리고 백색인 베실은 '순결의 색'으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합니다. 또한 성막 문의 문에는 문턱이 없으며 문 크기가 20규빗, 약 10m 정도 되는 크기의 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어떤 조건으로 가 아닌

그런데 그 조각목을 뜻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뜻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 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십자가의 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생명을 죽여 죄를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민21:21~25) 300장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하려고 합니다. 아모리 땅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기에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 지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혼은 단호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쩔 수 없이 전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군대를 무찌르고 그 땅 모든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내친김에 이스라엘은 '야벨'과 '바산'까지 다

무찔렀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영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왕으로부터 거절 받았으나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땅'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 받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대하며 실행하지 마십시오.

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민23:1~12) 430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땅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람이 듣고 불안해합니다. 오합지졸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브롤'에 살고 있던 '발람'을 고용하여,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발람은 세 번을 시도 했지만, 이스라

엘 백성에 대하여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수 하나님의 시선 (민25:1~9) 359장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바알의 제사 형식은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알브을 사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리셨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발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징계는 핏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엘르아살

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음란하고 있는 현장에서 장으로 그 둘을 죽였고, 전염병은 그쳤으나 이스라엘 백성 중 이만사천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법'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목 내가 슬로브핫의 딸이다 (민27:1~11) 382장

아모리 정복 후,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낏세 지파 절반'에게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므낏세 지파의 '슬로브핫'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슬로브핫에게는 딸들만 다섯 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딸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와 딱한 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딸에게도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

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라는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법'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금 맡겨진 구간 (민27:18~23) 240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형 아르네펀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여 후계자로 세웁니다. "네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섭섭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왜 가나안에

들어가질 수 없는지, 기력이 넘쳐에도 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위를 넘겨줘야 하는지'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성전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만 성실하게 달려갑시다.

토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 (민28:1~8) 131장

상번제(매일 드리는 번제) 때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바치되, 어린 숫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숫양 한 마리는 해가 질 때 바쳐야 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빵아 낸 기름 4분의 1 힌을 섞어서 소제(곡물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왜냐면, 제물 타는 냄새는 헌제자의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독교교육 (5)

교회의 기능과 교육의 역할

기독교교육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축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엡 3:10)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사역의 기능을 이행합니다.

먼저,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기능입니다. 예배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워십(worship)은 워쓰십(worthship)에서 왔습니다. 워쓰십은 예배의 대상이 존귀와 영광을 돌릴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역사(works)와 뜻을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자연, 역사(history),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 계획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곧 예배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도라는 기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19-20은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위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천 사역의 대상은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하며, 예수님의 분을 따라 편애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사역을 교회의 4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그 기능들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밀착합니다.

기독교교육은 예배의 기능을 돕습니다. 교회가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지, 언제 예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를 낳습니다. 아텐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사역이 교회의 4대 기능 살아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그 기능들을 발휘해야 한다.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크리스천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침례라는 간증을 통해 초신자들이 신자들의 교제권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은 교회가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의 성장과 성숙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달단계에 따라 젖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에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 신자는 유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신자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초보 적인 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에게는 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히 5:13).

넷째, 사역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중 하나는 디아코네오(diakoneo)로서 섬기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둘레우(douleuo)인데 노예처럼 일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이 곧 예수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마 20:28; 막 10:45; 요 17:1-17). 크리스천들도 사람들의 필요를 사랑과 겸손으로 채워주는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크리스

만 예배의 대상에 관해 무지했습니다(행 17:22-23).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종교적인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이 없으면 예배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전도도 기독교교육이 밀착됨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15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크리스천은, 기독교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신앙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 대화는 길도는 대화가 되고 맙니다. 전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 역시 기독교 교육에 의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새 신자를 교육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아 놓고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의 목표, 원리,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빈 머리에 지식을 부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영적인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원리와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기독교 교육의 과정, 즉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KAPC 세계선교회 선교포럼

“4차 혁명 및 팬데믹 시대, 선교동향과 선교방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홍귀표목사) 세계선교회(이사장 유재일목사)는 KAPC 총회 마지막 날인 13일(금) 오전 9시 '2022 선교포럼'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앞서 임흥섭 선교사 사회로 드러진 1부 예배는 이재석 선교사 기도, 유재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유재일 목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라!”(막6:35-44)의 말씀을 통해 “지상명령을 받은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순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다 나누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을 찢어주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교단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진행된 선교대회 포럼은 '4차 혁명 및 팬데믹 시대, 선교 동향 및 선교 방향을 예측한다'는 주제로 선교사들의 포럼이 있었다.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아지역의 한 선교사는 “자유주의가 아닌 곳에서 사역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이데올로기를 대적하고 있어 실제로 복음전도의 시행착오와 실패,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이 모이

는 곳이 교회기에 몇몇이 모이는 그곳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이일에 미국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학 선교사는 과거 미래 현재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개신교의 적 종교는 무엇인지, 현재 남미의 인구 분포와 향후, 현지인 복음화 운동, 세계지상 대명령인 선교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라틴아메리카 지역 선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캠퍼스 다민족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송종록 목사는 세계대학교 유학생 분포도, 미주에 유학생이 증가하는 이유, 다민족 유학생의 선교

의의, 다민족 유학생 선교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을 설명하며 “선교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은 사역을 위해 역문화적 도시로 동선했다. 그는 에베소와 여러 지역을 거쳐 결국 로마까지 갔다. 그가 문화가 없는 오지로 갔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살아 있다면 아마도 다민족 유학생을 통한 세계선교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나?”라며 다민족 유학생들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모든 포럼마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선교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 강사로는 이춘덕, 김중현, 김재학, 장석창, 조영훈, 송종록 선교사였으며 포럼을 마치고 유재일 목사는 이사들을 소개한 뒤 찬양과 합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선교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유재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13면에서 계속)

평신도들이 창의적으로 비정기구와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선교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 소개와 훈련을 통해 얼마나 많고 좋은 선교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미주한인교회는 결국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때에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누는 선교적 교회 영역 트랙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각 영역별로 다양한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새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제안하고 협력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앞으로의 선교는 특히 팀사역의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선교는 함께 해야 할 것이며, 그 누구도 혼자 마칠 수 없는 것이다. 선교사와 선교사, 선교사와 현지교회,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협력하여 팀으로 사역을 잘할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특별히 연합적으로 3명 이상 팀을 이루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권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야를 특정한 것은 다른 분야가 없거나 될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다루어져야 할 선교전략의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지역중심의 워크샵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나 중심 영역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논하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예전에 비하여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깊이가 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 예전의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선교사만 1,000명 이상 참석하는 대형 집회였으나 팬데믹 기간임을 감안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 이유로 소규모로 참석인원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선교사와 MK의 참석 규모는 약 400여 명으로 제한하였다. 전체 참석은 약 1,1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가 가장 효과적이며 주님이 기뻐하실 대회가 만들어지기 위하여서는 참석자 모두와 미주 한인교회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되어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을 결집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소수가 빛나는 무대가 아닌 모두가 빛나고 모두의 마음이 시원한 대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선교대회는 넓은 뜰에 울타리를 두는 때에 중간중간에 막대를 짚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고, 울타리가 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지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단면적인 울타리를 세우는 것으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 이제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이 기대된다.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교의 장이 보여 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자리하여,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기뻐할 진정한 선교의 동역자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아가자.

dr.yongcho@gmail.com

기독교 교육

(14면에서 계속)

균형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 자원의 제한성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인적, 시간적, 물질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과 더불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의미 있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활동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당하며, 자원을 적시적소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jonk@dbu.edu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3. 관심과 배려

말세기적 사탄의 교회 파괴작전은 가정파괴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혼외정사(외도), 자녀와 노인문제, 고부간의 문제 등으로 부부간에 갈등과 분쟁을 하다가 마침내 별거와 이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있다고 봅니다.

1. 관심(關心, Concern, Interest)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잊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심의 반대는 무관심이며, 사랑의 반대도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

운 법칙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관심의 힘입니다.

2. 배려(配慮, Consideration, Care)

'배려'는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씬'이라고 정의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배려'는 '배우자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고통, 고생, 근심을 덜어주거나 없애주려는 관심' 또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 주는 이기심 없는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엿볼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린 남편이 밤늦게 귀가하여 바로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늘따라 집 안 일을 많이 한 부인도 피곤하여 남편의 옆자리에 바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방에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싸움은 관심과 사랑의 결정판”

“배려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 주는 이기심 없는 관심”

는 것이며, 사랑이 없기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고, 부부싸움은 관심과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 "어느 초등학교에서 3개의 양파를 키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교실 앞 쪽에 컵에 담은 3개의 양파를 두고, 아이들이 한 양파에게는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칭찬을 해주었고, 다른 양파는 매일 미워하는 말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었고, 또 다른 양파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양파는 싱싱하고 튼튼하게 자랐고, 미움을 받고 자란 양파는 잎이 틀어지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무관심한 양파는 잎도 시들시들해지고 뿌리도 썩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양파를 되살리기 위해 미운 양파와 무관심한 양파에게 매일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주기 시작했고, 1주일 후 죽어가던 양파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깨닫게 하는 실험입니다. 또 어떤 아픔과 장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치유될 수 있다는 놀라

누군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불 좀 꺼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당신이 끄지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피차에 눈치를 보면서 서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 끄고 문단속한 것은 나인데, 자기가 좀 꺼주면 안 되나!...". 남편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요즘 좀 잘해줬더니 머리끝까지 올라오는구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밤새도록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을 꺼야 합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서 격무에 시달린 남편이 꺼야 합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집안일로 인하여 피곤한 아내가 꺼야 합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서로 상대방이 꺼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나도 피곤 하지만 상대방이 더 피곤할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남을 위하여 불을 끌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2년 제3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신학교 제3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제공합니다 (Youtube:KAPCQ)

설교 : 홍귀표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일 시 : 2022년 6월 6일(월) 오후 7시

장 소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 (718) 463-7163, (718) 886-4040

목회학 석사: 나일임, 박매자, 안진나, 허장길, 홍현숙, 김성애, 전일권

기독교 교육학 석사: 문인숙

선교학 석사: 이유숙

신학사: 염승희

학장 :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 허경화 장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인/터/뷰

KPCA 46회 총회장 박상근 목사

3년 만에 대면 총회...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진행

“모든 총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총회가 된다면 개혁은 이미 진행 중”

지난주 5월10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제46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에서 총회장에 박상근 목사(새크라멘트한인장로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전히 모일 수 없는 상태에서 두 번의 총회를 비대면으로 가져오다 3년만에 다시 대면으로 총회를 열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총회였다. 본지에서는 신임총회장과 지면 인터뷰를 총회에 관한 비전과 소감을 들어 보았다.

▲총회장으로 당선된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그야말로 ‘은혜’ 그 자체로 충분했던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모여서 저도 그렇고 모든 총대들이 감개 무량한 시간을 가졌었지요. 사실 델타와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온전히 모이는 총회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총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진행된 총회지만 박 총회장은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46회 총회장으로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은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1년

에 수천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현대 미국교회의 현실이며 이는 한국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은 결정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기에 총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니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이상의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요?

“총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워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총회를 참석하고 총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총회의 개혁이 가장 큰 화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언제부터인가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게 되는데요. 개혁의 정의부터 방법까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박상근 총회장과 박종희 사모

요. 하지만 총회장으로서 모든 총대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총회가 되어진다면 개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일테니까요.”

▲총회가 이민한인교회를 위해 가져야 할 역할 혹은 책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번 총회 주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총회’였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교회가 등장

합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세속화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경이 지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님의 그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세속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교회를 말합니다. 총회장으로서 바로 세 번째 교회가 되도록 교회들을 돕는 총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총회장 임기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의 고령화와 이민자의 감소로 인한 교회의 정체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고민하려고 한다”라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패러다임이 현장 예배에서 인터넷 예배로 전환이 되고 대세가 된 현실 속에 개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요?

“철학이 방법을 결정합니다. 목사는 CEO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목사도 종에 불과합니다.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의식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

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부정은 기분 나쁜 것을 참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리 때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이리 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양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이리 때,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름의 이리 때를 만날 때 양으로 존재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은 싸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것을 참는 자기 부정과 슬픈 갈등 속에서 만난 이리 때와 싸우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박상근 목사는 “46회기 동안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겨나가겠다”며 “교회가 총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총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총회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역사만 오래된 총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KAPC 총회·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모세미나, “사모, 상처받은 치유자-목회동반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가 시카고 힐튼호텔에서 열려 진행되는 가운데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1일(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사모세미나’와 이어서 진행된 ‘사모관광’은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모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단에 오른 강민국 목사는 “사모는 목사보다 더 많은 상처와 어려움에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사모 자신을 위한 존재라 생각하지 말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어려움을 담대히 드러내고 관리를 해야 한다”며 “사모는 목회에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목사 설교의 조연자가 되어야 하고 상처 입은 모든 여성들

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한 Lilly Clergy Renewal Grant (릴리 목사 회복 장학금)을 소개했다.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이런 케이스를 잘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하며 “이 장학금은 6년마다 신청할 수 있고 목회자의 쉼을 위한 여행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누리고 힘을 내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모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본 장학금에 관한 것은 Home Page : www.Lillyendowment.org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원서교부는 매월 11월부터이고 마감은 다음해 4월 27일까지. 발표는 8월 말이다. 강민국목사는 “홈페이

지를 살펴보고 서류를 작성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성심껏 돕겠다”고 말했다.

사모 세미나에 이어 시카고 관광이 진행됐다. 100여명의 사모들은 총회에서 준비한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시카고 전망대와 밀리니언 파크 등을 돌며 톨립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시카고 거리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특별히 관광을 안내한 이세형 가이드는 시카고 도시의 설명은 물론 “아내를 통해 다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해 사모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사모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날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해인 사모는 “따스한 위로와 신박한 정보로 사모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는 사모 세미나와 전문가 가이드까지 동원된 알찬 관광코스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마지막 날 저녁 예배시간을 통해 드러진 사모 찬양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경미 사모는 “사모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면서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며 풍성한 음식 대접, 여느 사모들을 위한 힘들지 않은 여행코스, 친절한 가이드, 전체 통솔을 잘해 주신 김호연 목사와 더불어 이번 총회에 사모를 위한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12일 저녁시간에 사모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해 목사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홍현숙 기자)



제46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사모들이 찬양하고 있다.



찬양하는 사모들을 위해 목사들이 사진 찍으며 박수로 응원하고 있다.

성경쓰기 대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육부 주관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성경과 함께 이겨내고자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필사 범위: 신약성경 혹은 구약성경(구약일 경우에는 신약성경 분량 이상)
기간: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4월9일 부활절까지
대상: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전 세계 교회 크리스찬들 (목사, 사모,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제출처: 아틀란타 ‘카페 로them’으로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2023년 4월 22일(토)까지 도착 (기일 엄수)
(Café Rothem/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28, Duluth, GA 30096)
시상식: 2023년 5월 총회 석상에서
1등(1명): 금 세 돈, 최우수상(2명): 금 두돈, 우수상(3명): 금 한돈, 장려상(10명): 금 반 돈

- 참여방법: 1) 매일 성경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성경쓰기 노트에 날짜를 꼭 기입할 것.
2) 번역본은 한국어든, 외국어든 자신이 선호하는 번역본을 쓸 것.
3)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하며 타이핑한 것은 받지 않음.
4) 성경을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Letter 1장 분량에 소감을 적어 함께 제출할 것.
5) 제출할 때에 성명, 직분, 남/녀, 나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시고 출석교회, 노회를 기입할 것.

참고: 제출하신 필사성경은 시상식 후에 돌려드립니다.
문의: 한일철 목사(총회 교육부 부장): 336)430-8749 / hanusa1962@gmail.com
정성환 목사(총회 부서기): 213)703-9961 / chjohn11@naver.com

총회장: 홍기표 목사 교육부부장: 한일철 목사
서기: 안병권 목사 교육부서기: 장용호 목사